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11일 대구 남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수험생을 둔 한 불자가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식품업계, ‘성장 공식’ 새롭게 쓴다 공장 통폐합 등 수익성 중심 슬림화

확장 대신 슬림하게

〈上〉 구조조정 본격화

내수 침체 장기화에 기업성장 한계
세제감면 혜택 종료 등 악재 겹쳐
제조기반 축소… 고강도 체질개선

‘몸집 불리기’와 ‘자회사 쪼개기’로 대변되던 국내 식품업계의 성장 공식이 저물고 있다. 고물가·고환율 장기화와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 속에서 주요 식품사들은 국내 공장 일부를 닫고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는 등 고강도 슬림화 체제로 돌아서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확장 대신 슬림하게] 시리즈를 통해 위기의 국면에서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 식품가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식품 생산 현장의 구조조정과 자회사 통폐합 실태(상편), 비주력 사업 매각 및 자진 상장폐지 등을 통한 효율 극대화(중편),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껴낸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K푸드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건 기업들(하편)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편집자주>

고물가·고환율 장기화와 내수 소비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식품·주류 업계가 확장의 시대를 접고 고강도 ‘슬림화’에 돌입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생산 거점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유휴 설비를 걷어내는 등 국내 제조 기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내수비중이 높은 전통 식품·제과 기업들의 국내 다이어트는 이미 현실화됐다.



롯데월드타워 사옥 전경.

2022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으로 출범한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자산 효율화 차원에서 신라명과와 충북 증평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해 4월 창사 이래 첫 회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음료주류 명가인 롯데칠성음료 역시 올해 초 창립 이후 처음으로 광주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1984년 가동을 시작해 42년간 호남 지역 생산 거점 역할을 해온 광주 공장을 포함해 전국 6개 공장 중 2곳(광주, 오포)의 운영을 중단하고, 남은 4개 공장(안성, 안성2, 양산, 대전)으로 물량을 집중하는 고강도 생산 거점 통폐합을 단행했다. 주류업계의 체질 개선 칼바람은 더욱 매섭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분기 맥주 생산능력(CAPA)을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축소했다. 작년 기준 맥주공장 평균 가동률이 58.6%에 머무는 등 저조한 가동률 속에서 유휴 병라인과 작업조를 정리하며 생산 체계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제조 기반 축소의 배경

에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함께 주세 감면 혜택 종료라는 추가 악재도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했으나, 해당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미 국내 주류 시장 출고량이 2014년 대비 17% 이상 감소하는 등 구조적인 위축을 겪어온 상황에서 가중되는 세금 부담은 가뜰이나 힘든 주류업계와 자영업 시장에 더욱 무거운 원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맥주 사업 효율화를 위해 ‘크리시’와 ‘글라드우드’의 생맥주 제품 운영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업소용 생맥주 비중이 높은 하이트진로와 옴비맥주는 가중되는 부담과 원가 압박 속에서 향후 가격 정책과 수익성 방어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식품·주류 빅플레이어들이 일제히 국내 생산 능력을 축소하고 세계 부담에 직면한 것은 국내 시장의 수익성 한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주요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고 수익성 중심의 ‘효율화’를 다지는 한편, 아낀 자원과 역량을 해외 신규 생산기지와 글로벌 판로 확장에 재배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국내 생산 현장의 가파른 슬림화와 세계 압박은 올해 식품·주류 업계가 마주한 거대한 체질 개선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한화, 오스탈 USA 인수 추진 美 해양 방산시장 진출 가속

기업가치 10억5000만~12억달러 제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수요 선점 기대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 USA를 최대 12억달러를 들여 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한화필리조선소에 오스탈의 현지 생산시설을 더해 미국 합정 건조 역량을 확대하고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관련 수요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미국 계열사 한화디펜스 USA를 통해 오스탈 USA 인수를 위한 비구속적·조건부 제안을 제출했다. 오스탈 전체가 아닌 미국 사업부만 인수하는 내용이다.

한화가 제시한 오스탈 USA의 기업가치는 현금과 부채가 없는 기준으로 10억 5000만~12억달러(약 1조5000억~1조 7000억원)다. 최종 인수 금액은 약 4주간의 실사와본계약협상, 관련 규제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 USA는 “한화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2024년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 왔다. 당시 한화오션을 통해 오스탈 전체를 인수하기 위해 10억2000만호주달러(약 1조원)를 제안했지만 오스탈 경영

진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이후 장외거래로 지분을 사들였으며 지난해 말 호주 정부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거쳐 지분 19.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 해양 방산시장 진출에 필요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대상을 오스탈 USA로 좁혔다. 미국은 자국 내 군함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현지 조선시설과 합정 사업 경험을 갖췄는지가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마스가 사업이 추진되면서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펜실베이니아주 한화필리조선소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조선 생산거점을 갖게 된다.

오스탈 USA는 미국 해군에 합정을 공급하는 주요 조선업체로 앨라배마주 모빌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등에 조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스탈 USA를 인수하면 한화는 필리조선소에서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합정 건조 경험과 미 해군 사업 기반을 보강할 수 있다”며 “미국 내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마스가를 비롯한 현지 합정 사업에서 수주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필희 기자 wkh@

metro

정부, 美 ‘무역확장법 232조’ 긴급대책 논의

안보 이유로 반도체·태양광 규제 빗장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에 규제 빗장을 걸어 잠그자, 정부와 국내 주요 반도체·태양광 기업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관계부처·업계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등 유관 대기업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하고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

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로 설정됐다. 수입 신고 가격이 기준치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만큼 징벌적 관세가 가해지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태양광의 기초 소재인 잉곳·웨이퍼, 완제품인 셀·모듈까지 망라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은 물론 미국 현지 공장에 진출·투자한 기업들의 소재 공급망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화큐셀과 OCI 등 국내 태양광 업계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한국산 제품은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232조 관세와 기존 관세를 합산해 최고 15%까지만 부과되는 ‘관세 캡(Cap)’ 혜택을 받는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박정하 “장동혁 광복절 행사 불참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김윤덕,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 지적에 “적극 공감”

/사전 뉴시스

▲홍준표 “부부 공동명의로 2주택? 기상천외”…李 지지율 폭락 경고

▲나경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이 다주택?…국가가 이혼 권하나”

▲이 대통령,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어…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유승민 “삼전신스 반도체 광주 몰빵 전력전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인가

AI 반도체 투자 경쟁 격화… 생산능력 확보 등 수 십조 베팅

삼성 메모리·파운드리 인프라 확장
SK하이닉스 용인 팹 조기완공 추진
인텔 보통주 공모… 대규모 투자 전망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와 첨단공정, 패키징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기술력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자본력도 주요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15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보통주 공모를 추진한다. 주관사에는 향후 30일 동안 최대 22억 5000만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도 부여했다. 옵션까지 행사될 경우 조달 규모는 최대 172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인텔의 이번 자금 조달은 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반도체 사업 전반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지난달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기존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18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상향했다. 파운드리에서는 차세대 14A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8년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iM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D램 설비투자 규모는 삼성전자 245억달러(약 35조원), SK하이닉스 232억달러(약 33조원)로 전망된다. 양사 모두 연간 200억달러가 넘는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에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 D램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파운드리에서는 2나노 공정 양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HBM4에 적용되는 로직 베이스다이와 AI 반도체 물량이 늘면서 4나노 생산능력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HBM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6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당초 204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었던 4개 팹을 2033년까지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생산시설 구축 일정도 앞당기는 모습이다.

해의 업체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파운드리 1위 TSMC는 AI용 첨단공정 수요 증가에 맞춰 2나노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월 생산능력이 기존 15만장 수준에서

올해 4분기 18만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나노 역시 상반기 월 5만~6만장 수준에서 4분기 8만장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창신메모리(CXMT)가 최근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14조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에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CXMT의 D램 설비투자 규모는 약 70억달러로 2024년보다 75%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개발과 함께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첨단공정과 메모리, 패키징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여력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김성환 “반도체 산단, 책임지고 전력·용수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 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강조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 확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공 지능(AI) 혁명 선도를 위한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용인·호남 등 핵심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필요한 탈탄소 전력과 산업 용수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혁명 선도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용인 및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현황에 대해 “SK의 전력공급 문제는 충남 석탄발전소 폐지 후 LNG 대체 물량을 옮겨 짓는 1단계를 포함해 3단계로 추진 중이며 대체로 협력이 끝난 상황”이라며 “삼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 국가산단의 경우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매입 등 조성 과정의 지체가 있었던 만큼, 전력 공급 지연으로 삼성반도체 건설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는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호남 반도체 추진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결단이 확정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만큼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육성에 따른 용수 부족 우려를 두고는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본 적이 없다”며 수자원 연계 시스템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는 한강에서,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용수를 공급하는데 이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며 “주요 강줄기와 댐, 댐과 댐을 연계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용하면 가뭄 시에도 농업·공업·생활용수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전력 및 에너지고성장 시대를 맞아 전력 산업 구조 재편과 계통 유연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으로 전기국가로 발돋움하겠다”며 생활 속 태양광 확충,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 확대, 지역별 전력수급을 반영한 요금체계 정비 및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개편 추진 구상을 공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8월 상순 수출 213억弗… 4년만에 최대치

(1일~10일)

반도체·석유제품 등 수출 증가

8월 상순 수출이 반도체 호황기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당 월 열흘간의 수출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3% 늘었다.

이는 8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치인 2022년 8월의 156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조업일수는 작년과 같은 7일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보다 45.3% 늘어난 30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무려 155.4% 증가한 99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문 역시 8월 상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20.1%포인트(p) 늘어난 46.8%였다. 올해 5월 상순 확정치인 47.0%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이 밖에 석유제품(65.3%)과 컴퓨터 주변기기(139.5%) 등에서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9.1%)와 선박(-58.2%)과 승용차(-80.9%)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 부문은, 생산량 조정을 받는 여름 휴가철이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로 분산된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초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대 중국(134.8%), 베트남(45.4%), 홍콩(259.4%), 유럽연합(EU·57.2%)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0.2%) 시장 수출은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국·베트남·미국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90.8%), 반도체 제조장비(77.3%) 등의 수입이 늘었다. 이에 반해 원유(-16.9%)와 가스(-10.0%) 등은 감소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울 오피스 거래규모 급증… 사무실 매매 5배 ‘경풍’

2분기 거래 1.7조… 전분기비 79% ↑

부진하게 움직이던 오피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 공급과 매각이 이어지면서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플래닛이 올해 2분기 서울시 오피스 매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오피스빌딩(일반건물) 거래금액은 1조 771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9.3% 상승했다. 작년 2분기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반등하면서 직전 분기 1조원을 밑돌던 흐름을 끊어냈다. 다만 아직까지 작년 2분기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권역별로는 YBD(여의도 업무지구, 영등포구·마포구)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증권빌딩’이 8112억원에 거래됐고, CBD(도심 업무지구, 종로구·중구)에서는 중구 순화동 ‘오렌지 센터(3500억원)’와 종로구 인의동 ‘하나손해보험빌딩(1369억원)’이 팔렸다.

사무실(집합건물) 매매 거래금액 역시 2조 595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해도 53.7% 증가했다. 종로구 인사동 ‘G1 SEOUL’에서 약 1조 4198억원 규모의 거래 33건이 이뤄진 데 이어 구로구 구로동 ‘G-Tower’, 중구 을지로4가 ‘엘지트윈타워’

등에서 집중 거래가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신규 공급 물량을 기능할 수 있는 2분기 업무시설 건축인허가 연면적은 48만 2788㎡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5.8%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은 법인 간 거래가 오피스빌딩과 사무실 모두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 공급과 매각이 이어지면서 향후 대형 거래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中 저가 덤핑 제동… 韓 ‘위기·기회’ 공존

≫ 1면 ‘정부, 美 무역확장법…’서 계속

중국산 저가 덤핑 물량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함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한국 태양광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정부는 이번 포고령에 미국 내 생산시설을 2029년 1월 20일일까지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232조 관세를 면제해주는 ‘온쇼어링 오프셋(Onshoring Offset)’ 인센티브 제도로 마련했다. 이는 관세 장벽과 투자 혜택을 동시에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 SK실트론 등 반도체

및 원자재 수급 기업의 경우, 미국 내 폴리실리콘 자급률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불안이나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면밀한 공급망 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232조 조치가 대미 수출 및 현지 공장 운영에 미칠 장·단기적인 영향을 품목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DS 적자 땀 성과급 '0%'… DX 손실에도 '1000주' 요구 논란

〈다바이스솔루션〉

〈다바이스경영〉

삼성 동행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
조합원 석달 새 10배 넘게 급증
1000주 전원 지급 땀 11조 규모
DS 6억·DX 600만원 보상 격차

사측, 추가보상 대신 DX TF 제안
내년 임금교섭서 보상체계 재논의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낸 삼성전자 다바이스경영(DX)부문에서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23년 적자를 낸 반도체 부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적자 사업부에도 조 단위 보상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삼성전자동종조합 동행(SECU)은 전날 'DX 경영실적 책임 및 보상 관련 피플팀 미팅'을 열고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추가 보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동행노조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1일 서초사옥 앞 집회에는 1500여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노조는 3000명까지 예상한다. 9월에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열린 'DX부문 사기진작 및 보상방안 마련 촉구 집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는 한남동 집회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수원사업장 앞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0명이 모였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같은 회사, 같은 권리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DS, 2023년 적자에 OPI 0%
삼성전자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보상

을 달리해 왔다. 대표 성과급인 초과이익 성과급(OPI)은 사업부가 연초 목표를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재원으로 지급하며 한도는 개인 연봉의 50%다.

이 원칙은 반도체 불황기에 그대로 적용됐다. DS(다바이스솔루션)부문은 2022년도분으로 한도인 50%를 받았지만 2023년 14조8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그해 실적분 지급률이 0%로 책정됐다. 이후 실적이 회복되자 지급률도 2024년도분 14%, 올해 지급된 2025년도분 47%로 올라섰다.

반면 DX는 올해 2분기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89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DS가 89조 2000억원을 차지했고, MX(모바일)·네트워킹은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VD(영상디스플레이)·DA(생활가전)도 적자를 기록했다.

◆DS 6억 vs DX 600만원
갈등의 출발점은 올해 임금협약이다. DS부문은 특별경영성과급 10.5%와 OPI 1.5%를 더해 메모리사업부 직원 기준 6억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지만, DX부문과 C&S사업팀 4만9345명에게는 지난달 8월 1

인당 600만원 상당 자사주가 돌아갔다.

노조 요구대로 1000주씩 지급하려면 4934만5000주가 필요하다. 지난 7월 종가(23만1000원) 기준 11조3987억원어치로 실제 지급분의 45배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실적과 무관한 조 단위 보상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적자에도 임원들이 거액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공시에 따르면 노태문 DX부문장은 장기성과인센티브(LTI)로 약 57억7000만원, 전영현 DS부문장은 약 26억6400만원 상당 자사주를 받았다. 다만 LTI는 이전 3년 실적을 평가해 이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DX 실적은 향후 지급분에 반영된다.

◆사측 "협약 이행 의무"… TF 제안

요구 규모와 함께 절차 문제도 제기된다. 동행노조는 지난해 말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다가 사후조정을 앞둔 5월 이탈했다. 임금협약은 찬반투표에서 73.7%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후 노조가 낸 교섭 중지 와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이 전날 요구한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금협약이 체결된 만큼 회사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 사측은 내년도 임금교섭에서 이른바 'DX 패싱'을 막을 'DX TF' 구성을 제안했다. 논의가 2027년 교섭으로 넘어가면서 동행노조의 발언권도 커질 전망이다. 조합원은 노조 홈페이지 실시간 집계 기준 11일 오전 3만293명으로 석 달 만에 열 배 이상 늘었다.

성과급 재원 논의는 정부로도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고용노동부에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성과급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롤이 된다"며 "성과가 직원과 주주뿐 아니라 협력사 등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는 이윤배분의 원칙과 제도적 체계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메가특구법 '주52시간 예외' 논란… 노동계 "수용 불가"

상위 3% 관리·R&D 주52시간 제외
파견 확대·기간제 4년 연장 검토
선택근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
민주당 "혁신·건강권 함께 살릴 것"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이 노동계 반발에 직면하며 쟁점화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파견근로자 업무 확대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선 이를 반대하는 강경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법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태홍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소득 상위 3%'는 약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인데, SK하이닉스의 평균 연봉은 1인당 1억8500만원,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은 1억5800만원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제도에 포함되는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파견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

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파견하용 업종은 32개로 제한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 등은 파견이 금지돼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메가특구 내 반도체 기업 종사자가 16주 연속으로 주80시간 일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로 26주 평균 주52시간을 맞출 수 있어 총근로시간 한도를 맞출 수 있다.

진보정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메가특구법에 '노동계약안'이 포함될 경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10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은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은 내놔지만,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온 노동규제 완화 움직임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노총 관계자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메가특구법 상 노동규제 완화안의 선결조건을 '노동계의 동의'로 내건 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노동계의 동의가 없어도 그렇게 해선 안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온 것인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이윤을 우선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정종덕·정혜경 손솔 진보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법을 두고 "산업을 침단화하겠다

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다. 연구개발 노동자도 과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주요 사업인 만큼 메가특구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선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철민 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특위 위원들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저항, 의문, 오해도 있다. 이를 불식시켜나가고, 앞으로 지역, 노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면서 메가 프로젝트 성공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일해나가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경사노위, 'N% 성과급' 사회적 대화 의제화 검토

삼성전자 노사 갈등 해법 모색 나서
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대화에 무게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는 논의 관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른바 'N% 성과급' 논란을 사회적 대화 의제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 성과급이란,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비례해 지급하는 산정기준(특정 비율)을 만들자는 노동계의 요구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를 두고 대립해 왔다.

대통령 직속자문위원회인 경사노위의 김지형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인가.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상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가 단체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장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단해 가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법원 판단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는 내부적으로 전문가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해,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의제화하

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왔다"고 말했다. 또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 관련해서는 노·정 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고, 노·정 간 대화도 시작된 만큼 경사노위가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고 했다. 이어 "추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지문을 요구하거나, 노장이거나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52시간제 예외 문제에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 해소보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우려를 풀어 갈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고소득층·외국인 몰린 백화점… 2분기 실적 ‘고공행진’

백화점 핵심 고객층 고소득 가구 높은 절대 소득 기반 지출 확대
원화 약세, 외국인 명품 소비 자극

올해 2분기 백화점 3사가 나란히 두 자릿수에 가까운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경기 둔화에도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확대된 데다 원화 약세를 등에 업은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명품과 패션으로 집중되면서 백화점이 내수 부진의 예외지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2분기 백화점 사업에서 일제히 호실적을 거뒀다.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의 2분기 매출은 89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97억원으로 국내 백화점 영업이익이 77.6%, 해외 백화점이 309.7% 증가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가와 패션을 중심으로 한 전 상품군의 판매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신세계백화점은 2분기 순매출 7385억원(대전·대구·광주 별도법인 포함)으로 동



2026년 2분기 백화점 3사가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기 대비 17.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88억원으로 53.5% 뛰었다. 상반기 명품 매출이 35% 늘어난 것을 비롯해 패션 10.1%, 리빙 16.6%, 식품 13.7% 등 전 장르가 크게 성장했다.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2분기 백화점 부문 순매출이 6438억원으로 9.1% 늘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01억원으로 58.6% 증가했다. 명품과 워치·주얼리, 패션 등 고단가 상품군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더현대 서울과 무역센터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각각 134%, 131% 증가했다.

백화점 3사의 동반 호실적 배경에는 우선 고소득층의 탄탄한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64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소비지출도 6.9% 늘어난 556만6000원을 기록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2.0% 증가했다. 소비 양

극화 속에서 백화점의 핵심 고객층인 고소득 가구의 구매력은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여기에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가세했다. 올해 2분기 방한 관광객은 4월 203만명, 5월 195만명, 6월 199만명 수준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8.8%, 19.4%, 23.1% 늘었다.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1071만명으로 21.3%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카드 소비액도 4월 1조 9924억원에서 5월 2조 1222억원, 6월 2조 544억원으로 늘어나며 월 2조원 안팎까지 커졌다.

특히 원화 약세가 백화점의 외국인 명품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501.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7%, 원·위안 환율은 220.70원으로 15.04% 상승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국가별 가격 차이를 좁히는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면세점의 가격 우위가 줄어든 반면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표시 가격의 부담이 낮아지면서 백화점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30%까지 높아졌고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명품 매출 중 외국인 비중도 올해 1~5월 15.8%를 기록했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5월 외국인 명품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0.6%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서도 백화점 매출 가운데 해외 유명 브랜드 비중은 4월 41.1%, 5월 40.0%, 6월 38.5%로, 매출증가율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고신장했다. 고소득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두 소비축이 마진율 높은 명품·패션으로 동시에 몰리면서 백화점 3사의 매출 증가가 더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장민지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백화점의 핵심 고객층인 고소득 가구는 높은 절대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 확대 이후에도 견조한 소비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방한 관광객 증가보다 관광 소비액이 더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백화점이 포함된 대형쇼핑몰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품보다 마진율이 높은 패션 장르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백화점 업계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K-방산 수주잔고 ‘주춤’… 하반기 성과에 ‘촉각’

KAI·현대로템·LIG D&A 수주잔고 감소
대형 해외 신규계약 확보 지연 영향
기존 방산강국 견제… 수주전락 필요

방산업계의 수주잔고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사업이 잇따라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다 유럽의 자국 방산업체 우선 기조로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하반기 신규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올해 6월 말 수주잔고는 25조

750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8% 감소했다. 현대로템의 방산·항공우주·로봇·수소 사업을 포함한 AD&RH 부문은 6.6% 줄어든 9조 8197억원을 기록했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수주잔고도 지난해 4분기 26조 23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24조 57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기존 계약 물량이 매출로 전환된 데 비해 이를 상쇄할 신규 계약이 충분치 못하다. 특히 올해 2분기 기대를 모았던 대형 해외 사업에서 입찰이 철회되거나 수주가 무산되면서 신규 계약 확보가 지연

됐다.

KAI와 록히드마틴은 약 10조원 규모의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 참여를 검토했으나 요구 조건 변경과 현지 조달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입찰을 철회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약 5조 80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IFV)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에 밀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력 강화로 글로벌 무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주 환경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유럽 각국이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현지 기업을 우선하고 역내 생산과 기술협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해외 사업의 계약이 지연되면서 각 업체는 하반기 후속 수주 확보와 수출 지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KAI는 상반기 신규 수주가 6295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10조 4383억원의 6%에 그쳐 하반기 수주 확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KAI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KF-21의 첫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수출지역을 폴란드 이외 국가로 넓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페루와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장

갑차 141대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하고 후속 이행계약을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과 중동·아프리카에서도 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LIG D&A도 중동에 집중됐던 수출시장을 유럽과 미국·중남미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독일 라인메탈과 유럽 및 나토 시장을 겨냥한 중·장거리 방공체계 협력에 합의했으며 지난달에는 페루 리마에 중남미 대표사무소를 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존 방산 강국의 견제가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방산시장 블록화에 대응해 권역별·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체계와 수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청년·고령자 고용 유지 中 小企에 장려금 지원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인력포럼’
정년연장, 세대 간 상생협력 필수

정년연장이 화두인 가운데 청년 채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인 청년과 고령자간 ‘세대상생’을 통한 세대간 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대상생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55세 이상)으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개최

한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 청년·고령자간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효율적인 정년 연장을 위해선 세대간 상생협력 필수적”이라며 특히 세대상생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추가 공제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장려금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청년 취업자 수와 청년 인건비를 줄이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내국인 대체시 인건비 지원 역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외국인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기업으로 요건을 제한해 지원해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한데, 지원받는 창업기업은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을 ‘청년+고령자’로 구성하고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들 스타트업에게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성 공패키지’와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을 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향후 5년간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정규직 취업자 수는 14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85만 5000명이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5~59세 정규직 근로자 월급은 평균 372만원으로 대기업(572만 원)의 65%에 그치고 있고 평균 근속년수(12.3년)는 대기업(23.1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에는 44%로 최고 10년간 12.4%포인트 늘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중소기업 임금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왼쪽 2번째부터) 노민선 중기연구원 실장,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조주현 중기연구원장,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근로자 중 고령자가 39세 이하 청년 비중보다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정년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놓고 청년세대와 장년·노년세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

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종합토론에선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길현중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최장호 서강대 교수가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선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12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오늘도 나와 의 약속을 지켰다

마지막 터치패드에 손이 닿는 순간
관중의 함성 속에
어제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빨라지겠다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결과가 어떻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승리입니다

앞으로도 어제의 나를 넘어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겠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멈추지 않는 성장을
국민과 함께 KB금융그룹이 응원하겠습니다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수영, 기계체조, 육상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 KB금융그룹

李 대통령, 부처 ‘엇박자’ 논란에 “이견은 자연스러운 현상”

“조율해 가는 과정이 민주적 행정
국무조정실→총리→대통령 순 조정
세제 개편안, 변경의 여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이 노출되거나, 검경 합동수사본부 지속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시각차가 있는 등 부처 별 ‘엇박자’ 논란에 대한 입장이다. 각 부처가 하는 일이 다르니 입장이 동일할 수 없으며,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등 지적들이 가끔씩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검경 합수본, 대북 4자 대화, 주 52시간 예외, 교육교부금 개편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산업부와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예외 적용 이견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을 내고 관찰해 나가는 건, 사실 과거에 지적받던 ‘실질 행정’”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

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고 논쟁하고, 이걸 조정해 나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른다. 이게 원래 가장 민주적”이라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데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다”며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인터뷰에서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건

가”고 반문했다.

이어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면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안이 어디 있겠나.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 미확정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걸 일부러 바깥에 대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간 당연히 논쟁이 있다.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으로 임명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해야,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 중소기업부, 그리고 노동부. 여기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투는 이 말”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 당권주자 호남 집결... ‘당심’ 쟁탈전

오늘까지 전남광주·전북 온라인 투표
김민석, ‘전북 메가 플랜’ 제시
정청래, 현장서 시민 접촉 확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향해 약 50만명의 권리당원의 당심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남광주·전북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13~14일에는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동 응답(ARS) 투표를 실시한다. 호남 순회 경선은 15일 오전 1시 전남광주 나주, 오후 5시 전북 익산에서 각각 열린다.

대외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같아진 ‘1인1표제’를 실시하는 첫 선거인 만큼, 권리당원의 약 33%가 있는 호남 순회

경선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순회 경선을 마친 결과,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누적 득표율 46.01%로 1위로 앞서가고 있다. 정 후보는 누적 득표율 44.53%로 김 후보의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송 후보는 9.47%로 고향인 호남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새벽부터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을 찾아 출근길 인사 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국 메가 플랜’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 전북 익산에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 김 후보는 전북 메가 플랜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2차·3차 대기업 투자 후속 계획에 전북 포함 ▲현대차 투자 초고속 확대 성사 ▲다수 협력기업 유치 성사 ▲미

국과 중국 등의 AI(인공지능) 관련 새만금 투자를 성사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전북금융중심을 강화 ▲국민적인 새만금 대협약을 통한 일부수의 공유모델 공론화로 새만금 개발기간을 초압축하는 그랜드 플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와 광양, 여수에서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잡고 호남 일정에 총력을 쏟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하락한 것을 두고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이라며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정청래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경쟁자인 김 후보를 향해선 “4년 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 의원이 ‘지선 패배’는 이재명 책임이다, 사적 판단이



11일 전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 응하고 있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 /뉴시스

앞섰다’고 했다”며 “남 탓이 습관성 고질병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이번 지선은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비판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을 품어 안겠다”고 보탰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오전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과 조찬을 호남 민심을 다지는 행보를 보였다. 송 후보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1일 광주전남어린이집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에서 제가 정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이고, 제1호 국정과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며 “말로는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담은 국정과제가 123개라는 것도, 제1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사격

삼전·하이닉스 경영진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별위원회가 11일 국가용인산단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국가용인산단을 방문해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의 패권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면서 “산단 조성의 필수 선결 조건인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다.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건의 사항도 꼼꼼하게 청취하고 촘촘한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용인 산단의 팹 완공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 구축과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보탰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저하가 해야 하는 것은 남아 있는 부지 매입을 빨리 끝내고 가장 중요한 전력 문제에 있어서 송전망 연결이 민원 등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짓고 만약에 오래 걸릴 것 같다면 기업들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청와대, 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후 면직

참모진 추가 개편 주목

청와대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내 참모진의 추가 개편이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관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교체되던 시점에 홍보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의를 표명했고, 한 달여가 지나 신임 수석 체제가 안착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후임 춘추관장을 찾고 있었다. 청와대 대(對) 언론 업무를 총

괄하는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김 관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이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전날 밤 비공개 회의에서 김 관장을 징계 후 면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관장이 2014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변경해 세입자를 받고 있다며 불법 증축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 관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당신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가 당신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교육 지원

- 직무별 특화 교육 및 AI실무 역량 강화
-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

고령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시니어 토탈 케어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 운영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내집으로 받는 평생연금

- 주택 가격 제한 없는, 내 집으로 준비하는 노후 자산 솔루션

한화생명, 애큐온·KDB생명 인수전 ‘인수금융·자본확충 조건’ 이목집중

‘비보험 금융 확장·자산 확대’ 카드
애큐온, 최종 투자액·지분율 미확정
기본자본 K-ICS 비율관리 등 변수

한화생명이 애큐온캐피탈 인수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KDB생명 본입찰에도 참여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두 거래는 실제 부담의 구조가 다른 만큼 예상 매각가를 단순 합산하기보다 인수금융·재무적투자자(FI) 조달과 매도자 측 자본지원, 편입 후 요구자본 증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평가다.

11일 보험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6월 애큐온캐피탈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다. 애큐온은 비보험 금융 포트폴리오 확장, KDB생명은 생명보험 계약과 자산 확대를 위한 카드다. 두 거래 모두 아직 인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 거래구조가 가를 ‘실질 청구서’

애큐온캐피탈 지분 96.06%의 거래가 격은 1조원 안팎이다. 한화생명이 이 금액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인수금융과 외부 재무적 투자자(FI)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다 최종 투자액과 지분율도 확정되지 않았다.

인수대금만 낮추면 부담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애큐온캐피탈과 자회사 애큐온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면 추가자본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차입 규모와 이자비용, FI 수익 조건, 인수 후 건전성 관리비용까지 봐야 한다.

KDB생명은 매매가격보다 자본확충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 /한화생명

조건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올 1분기 연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시 186.1%였지만 적용 전에는 74.5%였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각각 41.9%와 -25.2%로 격차가 더 컸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말 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추가 지원 여부와 인수 후 필요한 자본 규모에 따라 한화생명이 받아들 청구서가 달라진다. 실질 부담은 지분인수대금에 사후 자본투입을 더하고 매도자 측 사전 지원을 빼서 판단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KDB생명을 편입했을 때 한화생명의 기본자본 비율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추가 위험액이 쌓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건은 ‘자본의 질’

한화생명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K-ICS 비율은 162.1%로 전년 말보다 4.6%포인트(p) 올랐다. 반면 손실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자본 K-ICS 비율은 58.8%

로 0.7%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적격자본 24조415억원 가운데 기본자본은 8조7193억원, 요구자본은 14조8294억원이었다.

한화생명이 제시한 연말 기본자본 K-ICS 비율 목표는 60% 이상이다. 1분기 요구자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단순 가정 아래 60%에 필요한 기본자본은 8조8976억원으로, 현재보다 약 1783억원 많다. 이는 인수자금 부족분이 아니라 목표 비율까지의 거리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이다. 실제 M&A 이후에는 기본자본과 요구자본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

한화생명의 58.8%는 2027년 도입되는 기본자본 K-ICS 규제 기준 50%보다 8.8%p 높아 당장 적기시정조치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1분기 유동성비율도 443.3%,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2.8%로 단기 대응 여력은 양호하다.

다만 규제상 유동자산을 M&A에 쓸 수 있는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핵심은 거래 후 기본자본이 얼마나 남고 요구자본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다.

오는 12일 공개될 한화생명의 상반기 실적은 첫 점검대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이 60% 선을 넘어서는지, 보험계약마진(CSM)과 이익 증가가 자본 여력을 보강했는지에 따라 협상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 비율이 50% 후반에 머문다면 애큐온의 외부 조달 비중과 KDB생명 매도자 측 자본지원 조건은 더 중요해진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M&A 추진 여부와 별개로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11일 신축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뉴스1

서울 정비사업 현장 ‘이주비 부담’ 발목

대출 규제로 사업 자금조달 제동
선별지원 등 대안 마련 목소리 커져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문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대출 규제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까지 막으면서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이주비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공사 기간 동안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조합원 이주가 끝나야 철거와 착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주가 늦어지면 전체 사업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도 이주비 문제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공사비 상승과 조합 갈등에 더해 이주비 조달 부담까지 정비사업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기본 이주비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 수준이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사업장은 LTV 적용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1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458만원이다. 이주비 대출 최대 한도보다 1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올해 1월 기준으로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39곳, 91%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물량으로는 약 3만1000가구다. 서울시는 이주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주와 착공 일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일부 사업장은 이주비 조달 문제를 겪은 뒤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이주비를 마련했지만 금리가 연 7%대에 달해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장은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 높은 곳은 대형 건설사가 지급보증 등을 통해 추가 이주비를 마련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가 이주비 금리도 연 6~8% 수준으로 기본 이주비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수록 중견 건설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주비 규제 완화가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주택금융 대국민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강남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보다 소규모·저사업성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조달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모든 정비사업장의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보다 사업성이 낮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곳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기금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공적 보증을 활용해 보다 낮은 금리로 이주비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이주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채리 수습기자

건설업계, 폭염 장기화 ‘비상’… 현장부담 커져

올해 ‘폭염 할증’ 도입… 추가비용 발생
건설사, 작업중지권 보장 등 대응 강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후변화가 건설원가를 좌우하는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올해부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처음으로 ‘폭염 할증’이 도입돼 폭염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공사비에 반영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6.8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다.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더운 7월이다. 전국 폭염일수는 8.9일로 평년 4.1일의 두 배가 넘었다.

길어지는 폭염은 건설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은 2020년대 들어 2010년대보다 약 0.1%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건설업은 폭염 발생 당시보다 작업속도 저하가 누적되는 4~6개월 뒤 생산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정이 늦어지면 공사 기간이 늘고 추가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근로자 안전 문제도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2025년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228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06명으로 46.5%를 차지했다. 전체 산재자의 71.0%인 162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 중단과 작업시간 조정을 적극 요구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있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도 폭염을 미리 반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작업당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발생하는 생산성 감소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건설사들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등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을 적극 보장한다. 롯데건설은 전국 80개 현장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감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DL이앤씨는 냉방

휴게공간과 함께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운영 중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무더운 오후를 피하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을 미리 고려해 현장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더워 전면 작업중단 사례가 있긴 했지만 현재까지 공거나 준공 일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염시 휴식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작업중지권은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성격이 강하다. 노동계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작업중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국회에서는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공사장에서 폭염 등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일용근로자에게 시간당 2만2500원, 하루 최대 9만원의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삼성물산, ‘에버링’ 출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시니어의 삶과 공간을 잇는 인공지능(AI) 시니어 리빙 솔루션 ‘에버링(Everling)’을 공식 출시한다.

삼성물산 AI 시니어 리빙 솔루션의 정식 브랜드명인 ‘에버링(Everling)’은 ‘연제나’를 뜻하는 ‘에버(Ever)’와 ‘연결’을 뜻하는 ‘링킹(Linking)’을 합친 단어다. 시니어의 일상과 전문가의 돌봄을 스마트하고 따뜻하게 연결하는 AI 시니어 리빙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에버링은 시니어 돌봄 시설 운영자가 입주자 케어 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 활동까지 더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호스피탈리티(Digital Hospitality) 실현을 목표로 한다. 과학화된 건강·생활·운영 데이터를 통합해 입주자의 상태와 니즈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현하여 케어 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 운영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설계됐다.

현재 에버링은 경기도 의왕시에 해밀리가 개발 중인 ‘의왕 메디컬 레지던스’에 적용될 서비스 기획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더 시그널 하우스 강남’, 경기도 포천시의 ‘케어링 스테이 의정부수목원점’ 등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와 돌봄형 실버타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혜정 삼성물산 부사장(DxP본부장)은 11일 “돌봄 인력이 부족한 초고령사회라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돌봄 모델이 필수적”이라며 “에버링은 앞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전문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형 시니어 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美 철강 수입 줄었는데… 한국산 철근 수출 33배 ‘질주’

상반기 대미 철근 수출 48만t 돌파
4월 美 수입시장 점유율 67% ‘1위’
데이터센터·인프라 투자수요 뒷받침
내수 건설 침체에 美로 판로 확대
높은 현지가격에 관세 부담도 상쇄
수입 급증 따른 통상 리스크는 변수

미국 철강 시장이 품목별로 양극화되고 있다. 고율 관세와 자국 생산 확대에도 건설·인프라 투자로 봉형강 수요가 빠듯해지면서 전체 수입 감소세와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판로 확대에 나선 한국 철강업체는 미국 시장을 새로운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철강업체의 대미 철근 수출량은 48만 3549t으로, 전년 동기(1만 4557t) 대비 33배 이상 급증했다.

월별 점유율 성장세도 가파르다. 철강



현대제철 충남 당진 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전문 조사기관 스틸오비스는 지난 1월 미국 철근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은 9225t에 그쳤으나, 4월에는 전체 수입량(10만 3510t)의 약 67%에 달하는 6만 9751t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미국철강협회(AISI) 집계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요 공급국 가운데 한국산 철강 수입만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캐나다(-44%), 브라질(-33%), 멕시코(-35%), 베트남(-2%)

등은 모두 감소했다. 고율 관세와 자국 생산 확대 영향이 컸다. 미국의 올해 상반기 전체 철강 수입은 23.1%, 완제품은 24.3% 줄었고 철강 생산은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주요 공급국들은 관세와 반제품 중심 수출 구조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인프라 관련 철강재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 미국의 표준 레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7%, 중형 구조재는 58%, 구조용 파이프·튜브는 12%, 철근은 11% 증가했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가 관련 철강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철강업체의 내수 부진은 대미 수출 확대를 가속화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내수 수요가 침체되자 해외 판로 개척이 절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근 가격은 약세인 반면 미국 시장은 높은 가

격대가 유지되어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수출 유인이 충분했다”며 “미국 시장 가격에 맞춰 원가 효율성을 확보한다면 현지에서 경쟁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높은 현지 가격은 수출 유인 요소다. 다만 수입 급증에 따른 현지 통상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현대제철 등은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수출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윤 철강산업연구원은 “봉형강은 내수 중심 품목이고 미국은 전기로 기반의 자국 생산력이 강해 타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현지 수요가 자국 설비 용량을 뛰어넘으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이 새로운 수출 유인과 기회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LCC, 중앙아시아·日 소도시로 영토 확장

대형사 피해 틈새시장 선점 경쟁 치열
알마티·비슈케크 등 신규 노선 확대
단독 노선 앞세워 높은 탑승률 기록

카자흐스탄알마티,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일본 미야코지마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뛰어드는 노선 목록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형 항공사가 거들떠보지 않던 중앙아시아와 일본 소도시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1일 국적사 최초로 부산~알마티 노선에 취항했다. 주 2회(월·금) 운항하는 이 노선의 첫 편 탑승률은 99%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인천~알마티에 이은 두 번째 중앙아시아 노선이다.

티웨이항공은 2023년 6월 국적사 최초로 인천~비슈케크 정기편을 열었다. 취항 3년 만인 지난 5월까지 누적 탑승객 7만 1000여 명을 넘어섰고, 여름 성수기 평균 탑승률은 80~90%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사 중 비슈케크에 취항한 항공사는 여전



티웨이항공 단독노선 비슈케크. /티웨이항공

히 티웨이뿐이다.

진에어의 인천~미야코지마 노선은 취항 2년 만에 누적 탑승객 16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유일 직항으로, 수요가 늘자 지난 4월에는 부산~미야코지마 노선도 추가로 열었다.

세 항공사 모두 대형사가 손대지 않은 노선에서 두 자릿수 탑승률을 채우고 있다. 인천~도쿄, 인천~오사카 같은 주력 노선의 운임 경쟁을 피해 가격 결정권을

쥌 수 있는 단독 노선을 택한 전략이다.

여행 트렌드도 힘을 보탰다. 클룩이 지난달 1~20일 한국 이용자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일본 소도시 검색량은 마쓰야마 318%, 미야코지마 281%, 기타큐슈 265%, 히로시마 220% 등으로 도쿄·오사카(각 51%)를 크게 웃돌았다. 미야코지마의 관문인 시모지시마공항의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도 전년 대비 약 60% 늘어 51만 2000명을 넘어섰다.

정책도 뒷받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 운수권을 11개 국적사에 배분했다.

항공사들은 지역 수요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신규 취항지로는 부산~중국 도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새로운 이색 노선도 상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도 “신규 취항지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삼성전자, ‘7년 폴더블 기술’ 상설 전시

한지·디스플레이 기술 진화과정 공개

삼성전자가 7년간 축적한 폴더블 기술을 상설 전시로 내놔다. 애플의 첫 폴더블 진입을 앞두고 사전판매 144만대 흥행을 기록한 갤럭시 Z 폴드8이 연이어 포석이다. 10일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3층에서 폴더블 전시 공간 ‘폴더블 헤리티지’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스토어 홍대 1층과 청담 1층에서도 함께 운영된다. 청담점은 ‘갤럭시 폴드·플립’ 스토리 섹션 중심으로 꾸려진다.

전시는 ▲‘갤럭시 폴드·플립’ 스토리 ▲디자인 스토리 ▲테크 스토리 등 3개 섹션이다. 2019년 첫 인폴딩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부터 세계 최초 3단 폴더블 갤럭시 Z 트라이폴드와 새 화면비를 적용한 갤럭시 Z 폴드8까지 세대별 하드웨어와 갤럭시 AI 등 핵심 기술의 진화 과정을 한 동선에 담았다.

디자인 스토리 섹션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개발 과정을 다룬

다. 스케치 단계부터 수차례 목업 테스트를 거쳐 최종 화면비를 확정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폴드8은 기존 10대 9 세로형 화면비를 폴드8 울트라에 넘기고 4대 3 비율을 새로 채택한 모델이다. 테크 스토리 섹션에서는 디스플레이 기술과 한지 변천사, 내구성 검증 과정을 보여준다. 폴드8 울트라·폴드8에 처음 적용된 플렉스 티타늄 기술 영상과 실물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전자 갤럭시 Z 폴드7에서 OLED 패널과 티타늄 백플레이트 사이에 있던 플라스틱 필름을 티타늄 합금 필름으로 대체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모듈 두께를 약 10% 줄였다고 밝혔다.

전시에는 개발 단계의 폴딩·방수·충격 테스트 영상도 배치됐다. 폴드8 울트라·폴드8 내부를 그대로 드러낸 분해 전시도 공개됐다. 관람객은 초정밀 부품 설계와 공간 최적화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전자,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자체 수행

유럽 무선기기시험 시험기관 자격 획득

LG전자가 유럽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시험 역량을 강화한다. 제품 인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개발부터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LG전자 CTO 산하 SW공인시험소는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시험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선기기시험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에서 유통되는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안·안전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LG전자SW공인시험소는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해 해당 규제에 대응하는 인증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TUV 라인란드는 별도 시험 없이 LG전자의 자체 시험 수행 결과를 받은 뒤 데이터 검토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LG전자는 시제품을 해외 인증기관으로 보내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제품 개발부터 인증, 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보안에 민감한 제품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전장, 공조 등 B2B 사업에서는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B2B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샘, 소파 라인업 확대

기능성 신제품 3종 선보

한샘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에 세밀하게 맞춘 기능성 소파 신제품을 선보이며 기존 대표 제품군인 소파 라인업 추가 강화에 나섰다. 11일 한샘에 따르면 신제품은 ▲엠마컴포트스윙 ▲테이스리클라이너 ▲토빈 헤드틸팅 3종으로 한샘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집약했다. ‘엠마컴포트스윙’은 베스트셀러인 엠마컴포트에 스윙 기능을 결합한 제품이다. 등받이를 뒤로 이동시켜 좌방식 공간을 한층 깊고 넓게 활용할 수 있어 스물 없이도 다리를 쭉 펴거나 침대처럼 누울 수 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105~110도 각도의 등쿠션이 차별화된 착석감을 선사하며 벽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제로월’ 설계로 거실 공간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SDI,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개발

시너지셀즈 GM 지분 49.99% 인수

삼성SDI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세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양사가 설립한 합작공장을 단독 생산거점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수요 변화에 맞춰 북미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로 생산 품목을 확대하면서 현지 사업의 안정성과 시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SDI는 GM과 차세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의 공동 선행 개발을 위한 협약(JDA)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삼성SDI의 고에너지밀도·급속충전 기술을 적용한 각형 배터리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한 제품은 향후 GM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전망



삼성SDI 각형 배터리 ‘프리즘스택’. /삼성SDI

이다.

삼성SDI는 이와 함께 GM과 설립한 합작법인 ‘시너지셀즈(SynergyCells)’의 GM 보유 지분 49.99%를 전량 인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

시너지셀즈는 양사가 2024년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총 35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법인으로, 현재 연간 27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제조·금융 뚫은 독파모… 범용 AI·유료화 없인 ‘반쪽 주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SKT, ‘에이닷엑스 K2’ 등 공개
LG AI연구원, ‘K-엑사원 2.0’ 발표
현재 독파모 사업화, 현장실증 한계
유료화 전환은 아직… 차별화 부족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거대언어모델(LLM)을 잇달아 공개하며 기술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과 LG AI연구원 등은 최근 이들 모델이 중국을 대표하는 딥시크, 문샷AI, 즈푸 등 최신 AI모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벤치마크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국산 AI 모델의 활용처가 제조·금융 등 산업에 집중돼있어 향후 챗GPT·제미니와 같은 대중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로 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독파모가 AI 주권을 표방하지만 정작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사업 모델로는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독파모 모델 경쟁 치열…범용 AI 계획은 아직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에이닷엑스 K2’와 경량 모델 3종을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



K-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페이지에 공개했다. LG AI연구원도 전용 체험 사이트와 함께 ‘K-엑사원 2.0’을 발표했다. 업스테이지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역시 각각 ‘솔라 오픈 2’, ‘모티프’를 내놓으며 독파모 경쟁에 합류했다.

SK텔레콤의 에이닷엑스K2는 전체 매개변수 6880억개, 활성 매개변수 330억개 규모다. LG AI연구원의 K-엑사원 2.0은 전체 매개변수 7500억개, 활성 매개변수 370억개로 구성됐다. 두 모델 모두 전체 매개변수를 모두 가동하지 않고 과제별로 필요한 일부만 활성화하는 혼합전문가(MoE) 구조를 채택했다. 전체 매개변수의 약 5%만 활용해 추론 비용과 서버 운영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모델 규모 경쟁보다 실제 서비스 운영비와 수익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AI 서비스가 대중 시장에 안착해 유료 구독 모델을 구축하면 사용자 데이터와 피드백을 축적하고, 이를 다시 성능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로 연결할 수 있다. 범용 AI 서비스가 국산 AI 생태계 확장의 최종 단계로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독파모의 사업화는 산업 현장 실증에 머물러 있다. SK텔레콤은 에이닷엑스 K2를 SK바이오팜, KG스틸, 코넥 등 제조 분야에 적용하는 실증을 진행 중이다. LG AI연구원도 LG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계열사와 런던증권거래소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K-엑사원 2.0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독파모가 산업별 생산성 향상에는 활용될 수 있어도, 글로벌 생성형 AI와 직접 맞붙는 범용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라는 평가다.

◆ 유료화 못 넘은 에이닷·익시오…AI 주권은 제한적

국내 통신사들이 이미 보유한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에서도 이 같은 한계는 나타난다. SK텔레콤의 ‘에이닷’과 LG유플러스의 ‘익시오’가 대표적이다.

양사는 지난해 3월 AI 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밝혔지만, 올해까지 무료 서비스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품질 경쟁력과 보안 이슈, 이용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서비스와 비교할 때 이용자가 별도 비용을 내고 구독할 만큼 차별화된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석근 SK텔레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6’에서 에이닷 유료화와 관련해 “현재 가진 기술로 잘 풀아낼 수 있는지, 유료와 성능 레벨까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료화 전환의 전제인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 확보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국내 모델과 글로벌 선도 기업 간 체급 차이도 부담이다. 구글, 오픈AI, 앤스로픽 등은 최신 모델의 정확한 매개변수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3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문샷AI가 최근 내놓은 ‘키미 K3’ 역시 매개변수 규모가 2조8000억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국산 모델만으로 서비스를 구성하지 못하고 외산 모델을 병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에이닷은 자체 경량화 LLM인 ‘에이닷엑스 4.0’과 함께 챗GPT-5, 클로드 등을 활용한다. LG유플러스 익시오도 LG AI연구원이 개발한 경량 모델 ‘익시젠’에 제미니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국산 AI 모델을 개발·보유하는 것과 기업이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이 특화 모델뿐만 아니라 범용 AI 서비스와 유료 사업 모델로 연결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의 AI 주권 확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AI 앞세운 구글, 국내서 네이버 첫 추월

구글, 국내 MAU 4702만명 ‘1위’
네이버, 4685만명… 검색시장 변화
오픈AI 챗GPT도 가파른 성장세 보여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네이버의 아성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구글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네이버를 추월한 것. 챗GPT 역시 다음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생성형 AI 확산이 국내 검색·포털 시장의 이용자 지형까지 흔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이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구글 앱 MAU는 4702만2854명으로 생산성 앱 전체 분류에서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 앱은 4684만5017명으로 2위에 자리했다. 구글이 네이버를 MAU 기준으로 앞선 것은

모바일인덱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오픈AI의 챗GPT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달 챗GPT MAU는 1645만6151명으로 생산성 앱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다음 앱 이용자 수는 630만7395명으로 집계됐다. 챗GPT 이용자가 다음의 약 2.6배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가 기존 검색의 일부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용자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여러 웹페이지를 이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에 질문하고 답변을 바로 얻는 이용 방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 중 하나로 AI를 지목한다. 구글이 자체 생성형 AI 모델 ‘제미니’를 검색과 기존 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결합하면서 이용자 접

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를 별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검색 경험 자체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전략이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구글과 챗GPT의 동반 성장은 국내 모바일 플랫폼 경쟁의 중심축이 기존 검색·포털에서 AI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구글이 4년여 만에 처음 네이버의 모바일 이용자 수를 넘어선 가운데 챗GPT까지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의 AI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색을 위해 포털을 찾던 이용자들이 AI와 직접 대화하는 방식에 익숙해질수록 네이버와 구글, 오픈AI를 둘러싼 국내 모바일 이용자 확보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구글 AI 서비스 결합 요금제 선택

초이스 요금제 4종

KT가 최근 선보인 초이스 요금제에 구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추가 출시했다. KT는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와 결합한 초이스 요금제 4종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요금제 4종은 ▲초이스90 구글 AI 플러스 ▲초이스110 구글 AI 플러스 ▲초이스130 구글 AI 플러스 ▲초이스더블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 AI 플러스 등이다.

이번 요금제 특징은 데이터 무제한 제공과 함께 400GB 용량의 구글 AI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0GB까지 공유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생성형 AI 제미니이로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번역 등이 가능하다.

또 기존 구글 AI 플러스(400GB)에 월



KT 모델들이 신규 초이스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다.

/KT

4400원을 추가하면 용량을 2TB까지 확대할 수 있다. 고객이 AI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넉넉한 저장공간과 고도화된 AI 기능을 제공하는 상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최상위 요금제인 초이스 더블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 AI 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완전 무제한과 공유데이터 90GB,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글 AI 플러스(400GB)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금액은 월 12만원이다.

/조민선 기자

LG U+, 기업용 통합 보안 포트폴리오 공개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 참가

LG유플러스는 11~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6’에 참가해 기업용 통합 보안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기업 고객이 단일 사업자를 통해 주요 보안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과 운영 역량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키노트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통신망,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역량을 결합한 ‘통신사 네이티브 보안’ 전략도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계정 및 인증,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기획과 기술 로드맵 수립, 구축·운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고객에게 차별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I DaaS) 알파키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보안 통합 플랫폼 유플러스SASE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라우드보안팩 등을 선보인다.

알파키는 LG유플러스가 2025년 선보인 클라우드 기반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다. 임직원이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업무



ISEC 2026 행사장 내 LG유플러스 전시 부스 전경.

/LG유플러스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지원하며, 단일 로그인(SSO)과 다중인증(MFA), 동행암호 기술을 적용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서비스형 아이덴티티 관리(IDaaS) 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을 획득해 공공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조민선 기자

삼성SDS, 국내기관에 AI 연구용 GPU 공급

내년 3월까지 B300·H100 등 공급
세계 최고수준 연구 환경 기반 마련

삼성SDS는 2027년 3월까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AI 연구용 GPU 자원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사업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2026년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다. 삼성SDS는 해당 사업의 GPU 자원 공급 입찰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급 선정 입찰의 심사 항목은 ▲GPU 공급 계획 및 보유 자원 규모 ▲연구 환경 수준 ▲운영 지원 체계 등이다. 복수 지원

자 중 삼성SDS가 1순위로 선정돼 지난 7월 20일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공급 품목은 엔비디아 최신 모델 블랙웰 울트라(B300) GPU 클래스터와 H100(호퍼) 등이다. B300의 경우 제안요청서(RFP) 상에 기재된 호퍼급 이상의 요구사항을 상회하는 최신 아키텍처 기반 모델로, 대규모 파라미터 모델 학습 및 추론 영역에서 전 세대 대비 향상된 성능이 특징이다.

그 동안 국내 연구 현장은 GPU 자원과 글로벌 인프라 규모 간 격차 해소가 과제로 꼽혔다. 이번 공급을 통해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색다른 감각의 이머시브 뮤지컬 전 세계 최초 그랜드 오픈

뮤지컬

숲속

100

총자리집

©Toshio IWAI / KASEI SHUPPAN

2026. 7. 3(금) ~ 8. 17(월)

성균관대학교 대극장 새천년홀

“급락장 속 생활비 벌려고”… 자산 양극화, ‘빚투’ 부추긴다

국내 상위 10 종목 평균 수익률 -17%
서학개미 수익률도 -18.02% 기록

나흘간 빚투 규모 3조 가까이 급증
반대매매, 하반기 日 평균 412억
청년층, 포모에 고위험 투자 내몰려

“생활비라도 벌려고 대출받아 주식을 했는데 희망이 없다”며 “삶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강제 청산당하고 인생이 망했다고 소리 지르며 회사 복도에서 우는 부장이 있다. 대출을 다 쓰고 노후자금까지 털었다고 한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개미투자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은 가운데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지난 1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평균 -1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 빚투 손실 악순환?

개인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46.42%, 2위 삼성전자는 -31.14% 하락했다. 최근엔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거품 논쟁의 영향이다. 빅테크들이 이익·현금흐름을 뛰어넘는 지출을 부채로 메우고 있고, 수익률 하락 압박을 받는다는 게



ChatGPT로 생성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를 확대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본질이다. 여기에 ‘순환 금융’이 논란을 증폭하는 중이다. 반도체 회사가 AI 기업에 지급보증을 하고, AI기업은 이걸 바탕으로 돈을 빌려 반도체 회사의 제품을 사는 식이다. ‘생산적 거품’이라는 반론도 있다. 개인 순매수 3위인 삼성전자는 -41.67%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셀온’(Sell-on·호재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것) 성격의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 순매수 4위 한화솔루션(3.83%)과 OCI홀딩스(32.63%)를 제외한 나머지 순매수 10위권 내 LG디스플레이(-13.79%), LS일렉트릭(-

12.39%), 대한전선(-14.75%), 두산퓨얼셀(-40.45%) 모두 평가 손실상태다.

인천의 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박모(32)씨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용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다”며 “최근 손실이 커져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1~10일 서학 개미의 미 주식 순매수는 7억1646만달러로 집계됐다. 6, 7월에 이어 세달 연속 순매수가 능성이 커졌다. 코스피 상승세와 국내 시장 부극을 위한 정부 정책 등으로 4월에는

순매도(4억6883만달러)로 전환했고, 5월 순매도(9억3977만달러)는 커졌다. 하지만, 6월 다시 매수 우위(6억3296만 달러)로 바뀌었고 7월(46억4240만 달러)에는 그 폭이 대폭 확대됐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국장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7-8월 두 달간 미 증시에 쏟아 부은 자금은 53억5800만달러가 넘지만, 수익률은 신통치 않다. 이 기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약 -18.02%에 달한다. 이 기간 미 증시 S&P500(3.38%)과 나스닥 종합지수(1.49%) 수익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 자산 불평등이 만든 현실

하지만 지난 7월 말 5000선으로 밀렸던 코스피가 반등 조짐을 보이자 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0조23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일 27조4038억원으로 줄었던 빚투 규모가 나흘 동안 3조원 가깝게 늘어난 셈이다.

5대 은행 마통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불어났다.

증시가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

식에 투자했다가 강제 청산된 반대매매도 하반기 하루 평균 412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342억원보다 70억원 가량 많다.

개미들이 빚투에 내몰리기 쉬운 배경에는 심화된 자산 양극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올랐다. 0.625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균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으로 본다. 통상 0.4를 넘으면 심각한 불평등 사회라고 본다.

특히 청년층이 다른 세대보다 고위험 투자에 내몰리고 있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산 격차가 타 세대보다 빠르게 확대돼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형성 압박도 커졌다는 의미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빚투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 만큼 가급적 자제하고,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국면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도시바 지분매각에 키옥시아 ‘최대주주’로

도시바 지분율 14.48% → 14.12%
BCPE 판게아 케이맨2 지분 14.19%
낸드 시장 경쟁자이자 투자자 위치

SK하이닉스가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주주 위치에 올라섰다. SK하이닉스가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은 아니며, 도시바의 지분 매각으로 SK하이닉스와 연결된 투자목적회사가 최대주주가 됐다.

11일 키옥시아와 일본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도시바의 키옥시아 지분율은 기존 14.48%에서 지난 3일 기준 14.1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분 14.19%를 보유한 ‘BCPE 판게아 케이맨2’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회사는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SK하이닉스는 SPC의 결원 대부분을 가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 CB를 전환하지 않아 키옥시아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키옥시아 일본 요카이치 공장.

/키옥시아

상태는 아니다.

◆ 4조원 투자 8년 만에…도시바 매각으로 순위 역전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관계는 2018년 시작됐다. 당시 도시바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낸드 사업부인 도시바 메모리를 매각했다. 베인캐피탈이 주도한 한·미·일 컨소시엄이 인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SK하이닉스는 총 3950억원, 당시 약 4조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2660억엔은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SPC에 출자하고, 나머지 1290억엔은 키옥시아 지분

을 보유한 별도 SPC가 발행한 CB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도시바메모리는 2019년 키옥시아로 이름을 바꿨고 2024년 12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키옥시아 주가가 오르자 베인캐피탈은 보유 지분을 잇달아 매각했다. SK하이닉스도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이익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키옥시아가 지난 6월 제출한 유가증권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도시바는 지분 17.59%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BCPE 판게아 케이맨2는 키옥시아 주식

7740만주를 보유한 2대주주였다. 이후 도시바가 지분을 추가로 처분하면서 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없이 두 주주의 순위가 바뀌었다.

◆ 경쟁사이자 최대주주 측 투자자…CB 전환은 아직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와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최대주주인 SPC와도 연결된 투자자라는 위치에 놓였다. 자회사 솔리디움을 통해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을 벌이고 있어 키옥시아와 직접 경쟁하는 관계다.

키옥시아는 유가증권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가 SPC의 의결권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잠재적인 이해상충 위험으로 제시했다. CB가 전환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SPC를 통해 키옥시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은 양사 모두에 호재다. 밴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키옥시아가 제시한 3분기 매출 전망은 전 분기 대비 35% 증가다. BofA는 이를 근거로 키옥시아의 낸드 평균판매가격이 약 20%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키옥시아의 실적과 기업가치 상승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투자 관리의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실제 의결권을 확보하려면 CB를 SPC의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가 더 높은 지분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한 2028년까지 키옥시아의결권의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각국 경쟁당국의 독점금지법 심사와 일본 외환·대외거래법상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다.

키옥시아는 지난 6월 제출한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가 각국 독점금지법과 일본 외환·외국무역법상 필요한 절차를 이미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관련 절차가 끝나면 CB를 SPC의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달 국내 ETF 시장서 7150억 빠져나가

해외자산 ETF에 3230억 유입

8월 들어 올해 처음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유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코스콤 체크(CHECK)와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3~6일 국내 ETF 시장에서 4100억원이 순유출됐다. 코스피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 7월에도 한 달간 ETF 시장에 19조2000억원이 유입됐는데,

8월 들어서면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국내 자산 ETF에서 7150억원이 유출됐다. 해외자산 ETF에서 3230억원이 유입된 것과 대조적이다.

8월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7개월간 국내 주식형 ETF로 유입된 자금은 월평균 8조5000억원,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 달에도 14조원의 자금 순유입

이 발생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해외자산 ETF에는 323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 7월 5조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온 추세가 8월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자산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 심화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자산 ETF의 자금 이탈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 이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KB자산운용, 美 우주·위성통신 ETF 선택

‘RISE 美우주위성통신 ETF’
위성통신 산업 집중 설계

KB자산운용은 미국 우주·위성통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RISE 미국우주위성통신 ETF’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위성 제조·발사 ▲위성통신 장비·네트워크 ▲위성통신서비스 ▲위성 데이터·서비스 등 4개 영역에 속한 미국 기업 10곳에 투자한다. 한 종목의 비중은

정기 변경 시 최대 25%로 제한하며, 연 4회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한다.

이 ETF는 위성통신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만 편입해 위성통신 산업에 대한 노출도를 100%로 높게 특징이다. 기존 국내 상장 미국 우주 테마 ETF들이 방산이나 발사체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위성통신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하은 기자

‘고무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국가 상한선 도입

기후부, 개정안 내달 18일 시행
태양광 200m·풍력 1500m 이내
과도한 이격거리 조례 완화 의무

정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무줄처럼 적용되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선’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과도하게 넓혀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던 걸림돌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개정돼 내달 18일 시행을 앞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이격거리…예측 가능성 높이고 입지 제약 해소**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



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자체마다 편차가 매우 크고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 고려한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정할 때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

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설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반면,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법률에 따라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 **상한 초과 조례는 완화 의무…‘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법체계도 분리**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이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상한선’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기준 이내로 조례를 완화·개정해

야 한다. 예컨대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300m로 규정한 A지자체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이미 100m로 규정한 B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법률 개정에 맞춰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각 분리·정비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화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검체검사 업체, 12년간 낙찰자·물량 담합

녹십자·지씨셀·삼광·씨젠·이원 등
7개 대형 수탁·지휘 사업자 적발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혈액·조직 등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12년 이상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대형 검체검사 수탁기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에 올려졌다. 담합으로 영향받은 관련 입찰 규모는 3000억원 규모다.

공정위 사무처는 11일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을 벌인 7개 사업자에게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정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심인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

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국내 주요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 7곳이다.

검체검사는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소변·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다. 병원들은 원내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국공립병원의 경우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2년 10개월 동안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총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물량을 나누어 먹는 식으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것

으로 파악됐다. 이번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거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제8호) 및 물량담합(제3호)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 및 관련 임직원에게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항서부터 외국인 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산업인력공단·세관 맞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협력하에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히, 17개 송출국 노동자들 대상으로, 대한민국 입국 직후부터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11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입국 지원과 마약류 범죄 대응 및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마약 범죄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세관 신고 절차, 통관 관련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통관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그간 인천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서비스센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E-9)의 입국을 지원해 왔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공항에서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력 도입 사업을 안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폭염에 채솟값 비상… 배추·무 2만톤 쏟아

농식품부, 추석까지 채소 할인 지원

정부가 기록적 폭염에 따른 채소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배추와 무 비축물량 2만 톤(t)가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9월 하순 추석 때까지 한 달여 주요 채소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육 지연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7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는 평균 4358원으로 1개월 전 대비 20.8% 올랐다. 같은 기간 청상추가 100g당 1165원에서 1651원으로 41.7% 올랐고, 시금치는 100g당 784원에서 1978원으로 무려 152% 급등했다. 오이 가격도 개당 762.3원에서 1078.8원으로 치솟았다.

농식품부는 고온 피해 예방 및 생육 관리에 필요한 약제·영양제와 멀칭필름,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을 예년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어 “여름철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해, 주요 수급관리 품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배추 상품이 쌓여 있다. /뉴시스

목인 배추·무의 경우 지난 7월 정부 수급물량(배추 1만5000t, 무 6000t)을 확보해 비축 중”이라며 “출하량 감소 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 실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소류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기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정부 할인행사(최대 40%)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8~9월 기간 수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꾸렸다. 이를 통해 주요 산지 작황 및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점검에 나섰다. /세종=김연세 기자

반도체 호황에 10대기업 수출 집중도 55%

데이터처, 2분기 수출액 2755억달러

반도체 호황기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55.3%로 전년동분기에 비해 17.0%포인트(p) 올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 10년간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0% 중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집중도는 지난해 2분기 38.3%, 3분기 40.6%, 4분기 43.4% 등을 거쳐 올해 1분기(50.1%) 50%대에 진입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1년

전보다 10.0%p 뛴 76.3%로 나타났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31.5%)는 전년 동분기 대비 2.4%p,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59.1%)는 4.5%p씩 올랐다.

올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전년동분기 대비 57.3% 증가했다. 수입액은 1889억 달러로 22.4% 늘었다. 수출액 증가폭은 대기업(81.8%)이 중소(13.1%)·중견기업(10.9%)에 비해 훨씬 컸다. 대기업은 소비재 수출이 감소했지만 IT부품, IT제품, 광산물 등 자본재·원자재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별로 광제조업 수출이 64.9% 늘었다. 전기전자(109.8%), 금속제품(37.8%), 석유화학(26.3%) 등의 증가폭이 컸다. 도소매업은 14.3%, 기타 산업은 0.1%씩 수출이 증가했다. 자본재 수출이 87.1% 늘었고, 광물성연료 등 원자재 수출도 25.2%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EIT 신임 원장에 이용필 전 대변인

〈산업부〉

이용필 전 산업통상부 대변인(사진)이 11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용필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소재융합 산업정책관, 첨단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을 거치며 산업·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을 지적하며, 산업기술 R&D를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의했다. 특히 정부의 Manufacturing AX(M.AX) 정책을 맞춰 제조기업의 AI 대전환을 적극 이끌고, 국가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등록금 동결, 예산은 국립대로… 사립대, 신입생 모집 ‘비상’

교육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지역대학 학생 전액 장학금 검토

사립대, 규제에 재원 확충 어려워
형평성·지역대학 경쟁 기반 훼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립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규제에 더해 정부 재정지원이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신입생 모집 경쟁까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른바 ‘3중 압박’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4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 소요 예산은 내년 1000억원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대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등록금 규제다.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 기조가 이어졌고,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인상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상 한도도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지만, 사립대들은 그동안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연계 등을 의식해 실제 등록금 인상에는 제약이 컸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II유형과 등록금 동결 연계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사립대들은 장기간 누적된 재정 부담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정부 재정지원이다. 사립대가 체감하는 재정지원 격차는 최근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사립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5극 3특’ 연계 지방대 육성, 브랜드 단과 대학, AI 거점대학, 특성화 지방대학 사업 등 주요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거점국립대는 특성화 지방대학 사업을 통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사립대들은 여기에 지역 균형 장학금까지 국립대 중심으로 설계되면 재정지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로 자체 재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까지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국·사립대 간 교육 여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까지 사실상 ‘0원’이 되면 입시 경쟁에서도 사립대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금 부담이 사라질 경우 수험생들의 국립

대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지역 사립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지역 균형 장학금을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국립대에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학생 간 형평성과 지역대학의 경쟁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사무총장은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까지 시행되면 학생 모집 경쟁에서도 사립대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 장학금은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니라 지역과 학생을 기준으로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립대의 AI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국국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정책을 환영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2031년까지 주택 8.7만호 순증”

서계·청파동 일대, 모아타운 등
현재 민간정비사업 7곳 추진 중
임대주택도 4.8만호 확보 예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서울 전역에서 약 8만7000호의 주택이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을 서울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은 제외한 6곳의 주택은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 약 26.5%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주택 6393세대를 모두 멸실 물량으로 계산한 순증 규모다. 청파3구역의 계획 세대수가 확정되면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SOC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가깝지만 좁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골목과 가파른 구릉지,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장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은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기존 172세대를 499세대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계·청파동 일대를 돌아본 뒤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주민 및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성 개선과 인허

가 기간 단축,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약 2만호 늘었다. 재개발은 약 7000호인 27.4%, 재건축은 약 1만3000호인 44.2%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 멸실을 반영해도 약 8만7000호, 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호 확보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산시, 베트남 다낭시와 교류 승계 협정

광남성 자매결연 이후 22년간 교류
행정·경제·문화 등 협력분야 확대

오산시가 베트남 다낭시와 기존 교류 관계를 공식 승계하고 행정·경제·문화·교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해 오산시와 다

낭시 간 교류 승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낭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조용호 시장과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오산시·오산시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다낭시에서는 응우옌 티 아인 티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대표단을 맞이했다.

이번 협정은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교류 도시였던 광남성과 다낭시가 통합됨에 따라 오산시와 광남성 간 교류 관계를 다낭시가 공식 승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Meet Korea in Da Nang 2026’ 행사에서 교류 승계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 우호 관계를 지속발전시키기로 했다.

오산시는 2004년 광남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2년간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기존 국제교류의 기반을 다낭시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산(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사천시-하동군, 사천공항 확장 등 뜻 모아

국토부에 공동건의문 발표

사천시와 하동군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2026~2030)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과 CIQ 시설 설치를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10일 발표했다.

두 지자체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사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해안 국제관광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동식 사천시장과 김현수 하동군수는 10일 오후 3시 사천시청 시장실에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비전 공유, 남해안 관광 개발과 하동군 관광 비전 공유, 사천공항 확장·CIQ 시설 설치 필요성 설명 순으로 행사를 진행한 뒤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사천은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

업(KAI)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의 중심축이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임시 청사 체제로 공식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으로, 2030년까지 우주항공국가산단 내에 신청사를 건립해 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천시와 하동군은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 연구 기관, 투자자의 방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 인프라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CIQ 시설 설치 건의와 관련해 항공 MRO 산업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천공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옆에 있는 군 공항으로, 길이 2743m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연간 16만 5000회 가량 운항하고 있으나 현재는 국내선만 다니고 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대일공업 국내복귀 투자 유치

506억 규모 車 제조공장 신설

경주시가 자동차부품 기업 대일공업(주)의 국내복귀 투자를 유치했다. 대일공업은 베트남 생산라인을 이전해 경주에 506억원 규모의 자동차 시트용 스티폼 프레임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경주시는 1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대일공업과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올해 경주시의 첫 국내복귀 투자유치 사례로, 대일공업은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에 경주공장을 조성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경주공장에서는 제네시스 등 신규 차종에 적용되는 시트 프



주낙영 경주시장과 문상인 대일공업(주) 대표이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0일 경주시청에서 506억원 규모의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레이 부품을 생산한다.

1987년 설립된 대일공업은 충남 천안에 본사를 두고 울산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신규 차종 양산과 생산물량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뷰티가 새 성장축”… K-뷰티, 기기·화장품 결합 본격화

에이피알, 기기로 화장품 구매 연결
아모레, 브랜드에 기기 기술 접목
달바, 디바이스로 화장품 팬덤 확장

K뷰티 시장이 홈뷰티를 위한 기기 전쟁으로 돌입한 가운데, 홈케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침투 방식이 확연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 디바이스 보급을 발판 삼아 고마진 화장품 재구매를 폭발시키는 ‘하드웨어 우선형’ 모델과, 기존 화장품에 구축된 강력한 팬덤 및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디바이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엮어 파는 ‘소프트웨어 확장형’ 모델이 격돌하는 양상이다.

1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를 시장 침투의 핵심 플랫폼으로 세운 뒤, 연계 화장품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뷰티 디바이스가 선제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전용 앰플과 스킨케어 제품의 소비 주기가 극적으로 단축



올해 상반기 에이피알이 선보인 뷰티 디바이 신제품 ‘부스터 글로우’

/에이피알

되며 화장품 매출 증가 속도가 디바이스를 크게 상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에서 뷰티 디바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화장품 비중은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다.

2026년 1분기 전체 매출 5934억원 중 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4% 급증

한 4526억원이다. 뷰티 디바이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6% 올라 1327억원을 냈다. 전체 매출에서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비중은 각각 76.3%, 22.4%로 집계됐다.

이어 2분기에는 매출 7675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비중이 각각 84.5%, 14.6%로 기록됐다. 화

장품 매출은 6483억원으로 185.5%의 성장세를 보였고 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11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늘었다. 기기 보급과 함께 화장품 재구매 효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국내 정통 뷰티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피부 과학 연구 역량과 자사 브랜드 자산에 에스테틱 및 의료 기기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 일상 스킨케어에 전문성을 더해 브랜드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어코퍼레이션’과 전략적 투자 계약도 체결하며 전략을 구체화했다. 하이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에스테틱 부문 의료 기기 개발 역량 및 의료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 시술 후 피부 관리에 쓰이는 제품, 스킨부스터, 코스메슈티컬 분야 등에 주력한다.

신흥 뷰티 브랜드인 달바글로벌도 기존 화장품 성과를 바탕으로 뷰티 기기 사업을 신생 육성 사업으로 낙점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달바글로벌은 일명 ‘승무원 미스트’로 알려진 미스트를 비롯해 비타 토닝 등 스킨케어로 유명세를 구축해 왔다. 이후 ‘시그니처 올빼미 더블 샷’ 등 신제품을 내놓았다. 해당 제품은 국내 최초로 두 개의 헤드를 하나의 기기에 설계한 올인원 형태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달바는 올해 연간 매출 7000억원, 영업이익률 21%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뷰티 디바이스, 헤어·바디 등 퍼스널 케어 등을 ‘제3의 히어로 제품’으로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자사 브랜드 생태계 안에 지속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시장 진입과 신규 고객 창출뿐 아니라 향후 기존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K뷰티의 확장 가능성까지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K-푸드 성장에 CJ제일제당 매출 10% ↑

영업이익 1619억… 18.4% 감소
미주 지역에서 만두·햇반 판매 늘어
국내 식품 매출 1.3조… 1.4% 증가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식품사업과 바이오 부문의 외형 성장에 힘입어 2분기 매출을 두 자릿수 끌어올렸다. 고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 고수익 제품의 실적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분기 대한통운을 제외한 매출이 4조19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619억원으로 18.4% 감소했다.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7조3621억원, 영업이익 2576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9.5% 증가, 18.5% 감

소한 수치다.

식품사업부문은 매출 2조8441억원으로 5.8%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709억원으로 21.3% 줄었다. 해외 식품 매출이 1조5072억원으로 10.1% 증가하며 전체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미주에서는 만두·햇반 판매가 확대되며 10% 성장했고, 유럽과 아태지역도 각각 19%, 21% 증가했다. 중국 매출도 만두와 냉동주먹밥 판매 확대에 힘입어 5% 늘었다.

국내 식품 매출은 1조3369억원으로 1.4% 증가했다. 내수 부진과 소재사업의 원가 부담이 이어졌지만 건강·웰니스(H&W) 관련 신제품 판매가 성장을 뒷받쳤다. 다만 고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은 악화됐다.

바이오사업부문은 매출 1조3509억원으로 20.8% 늘었다. 알자닌·이소류신 등 스페셜티 아미노산과 라이신 판매 확대가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910억원으로 15.9% 감소했지만 전 분기보다 855억원 늘며 실적 회복세를 나타냈다. 트립토판 시장 경쟁 심화와 지난해 높은 이익에 따른 기저효과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만두와 햇반 등 글로벌전략제품을 앞세워 K-푸드 글로벌 신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고, 바이오 사업 판매 확대와 제조원가·고정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百貨, 백화점 최초 ‘RCS’ 메시징 도입

롯데이노베이트·KT와 협업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RCS는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이미지와 버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다. 발신자 정보에 인증된 기업의 공식 로고가 표시되며, 브랜드 프로필을 통해 홈페이지 등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이노베이트, KT와 협업해 전용 RCS 플랫폼을 구축했다. 롯데백화점에 적용할 메시지 서식을 개발하고 대량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시스

템 환경을 마련했다.

RCS 도입에 따라 고객은 발신 기업의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기업 사칭이나 스팸 메시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 기본 문자 앱에서 일대일 소통도 가능하다.

메시지에는 온라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버튼과 고화질 이미지 등을 넣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프로모션 안내와 쿠폰 제공, 서비스 이용, 이벤트 참여 등 고객 안내에 RCS를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RCS를 통해 확보한 고객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 마케팅과 멤버십 연계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이베이 한국 셀러 매출 ‘7분기 연속’ 최고

2분기 매출 성장률 1위는 캠코더

온라인 역직구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베이(eBay) 한국 셀러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베이는 한국 셀러 매출은 2024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셀러 수도 2024년 4분기부터 7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5년 1분기부터는 6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2분기 매출 증가율 상위 카테고리에는 캠코더와 조립 완구, K팝 관련 상품 순으로 나타났다.

캠코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네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률 1위에 올랐다. 오즈모 포켓 등 소형·휴대용 짐벌 카메라 수요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드론은 분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디지털 카메라 매출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영상 콘텐츠 제작 수요와 레트로·Y2K 유행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립 완구 부문에서는 레고 판매가 늘었다. 단종 제품을 비롯한 수집용 레고에 대한 수요가 반영됐다. K팝 관련 상품 가운데서는 팝업스토어와 팬미팅 등 오프라인 행사에서 판매된 한정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한국 셀러가 판매한 개별 상품의 판매량 상위 10위에는 국내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이 다수 포함됐다. ‘스텔라블레이드 니벨아레나 부스터 팩’이 전체 판매량 1위를 기록했으며 ‘메이플스토리X 롯데월드 협업 상품’은 4위에 올랐다.

‘BTS 아리랑 팝업 럭키드로우 포토카드’와 ‘스트레이 키즈 6기 팬미팅 상품’은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니도 나이스 큐브(NeeDoh Nice Cube)’는 전체 상품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 미국 양말 브랜드 뱀바스(Bombas)는 남성과 여성 패션 카테고리에서 모두 판매량 상위 5위에 포함됐다.

/김서현 기자

파스퇴르 대용량 그릭요거트 출시

롯데웰푸드 파스퇴르가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대용량 그릭요거트를 선보인다. 단백질과 칼슘 함량을 높이고 무가당·락토프리로 설계해 건강과 영양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했다.

롯데웰푸드는 그릭요거트 신제품 ‘파스퇴르 그릭’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400g 용량으로 출시해 한 끼 식사나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g당 단백질 6g과 칼슘 200mg을 함유했다.

제품에는 설탕을 넣지 않은 플레인 타입을 적용했다. 유당을 분해한 락토프리 제품으로 유당 섭취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00억 CFU의 유산균을 함유했으며, 과도하게 되직하거나 묽지 않은 질감으로 과일이나 견과류 등 토핑과 함께 먹기에도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원료 차별화에도 힘을 줬다. 파스퇴르 전용 목장 원유를 86% 사용해 파스퇴르 우유의 고소하고 신선한 맛을 살렸다.

/신원선 기자

현대그린푸드, 미역·김부각 넣은 빵 선보

오뚜기와 이색빵 7종 개발

현대그린푸드가 오뚜기와 손잡고 식품과 베이커리를 결합한 이색 메뉴를 선보인다. 미역국에 들어가는 자른 미역과 들기름을 빵에 접목하는 등 익숙한 식재료를 색다르게 풀어내며 ‘빵지순례’에 나서는 2030세대 고객을 겨냥했다.

현대그린푸드의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VEZZLY)는 1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오뚜기와 공동 개발한 베이커리 메뉴 7종을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오뚜기의 자른 미역과 순후추, 초당옥수수콘 등 대표 제품을 베이커리 메뉴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제품은 ‘자른 미역 치즈 브레드’다. 오뚜기 자른 미역과 들기름을 활용해 미역국의 맛과 향을 빵으로 구현했으며, 고다치즈를 더했다. 이 밖에도 순후추·참쌀 김부각·초당옥수수콘을 각각 올린 ‘순후추 휘낭시에’, ‘김부각 휘낭시에’, ‘옥수수 휘낭시에’ 등이 출시된다.

참깨와 검은깨를 활용한 ‘깨 쏘아지는



현대그린푸드 베즐리 오뚜기협업 베이커리

/현대그린푸드

쿠키’, ‘참깨 초코 미니 빵미가래’와 함께 오뚜기 오즈키친 치킨, 닭강정 소스, 초당옥수수콘을 조합한 ‘피닭 속 초당옥수수’도 선보인다.

협업 제품은 압구정본점과 판교점, 더현대 서울 등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베즐리 매장 12곳에서 판매된다. 휘낭시에 3종은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에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편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현대차, 가상 레이싱으로 e스포츠·모터스포츠 잇는다

‘2026 현대 N 버추얼컵’ 개최
국내 최상위 선수 24명 본선 진출
11월 부산 G-STAR서 최종 결승

현대자동차가 e스포츠와 모터스포츠를 결합한 새로운 자동차 문화 확산에 나선다.

현대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심레이싱 e스포츠 챔피언십 ‘2026 현대 N 버추얼컵’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 ▲지스타 조직위원회 등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2024년부터 시작된 ‘현대 N 버추얼컵’은 지자체, 게임산업계, 자동차 제조사가 협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심레이싱 e스포츠 대회다. 올해 현대 N 버추얼컵의 공식 레이싱 게임으로는 유명 글로벌 레이



현대차 레이싱 게임 그란투리스모 7(Gran Turismo 7) 내 ‘현대 N 2025 비전 GT’ 경주차 이미지.

싱 시뮬레이션 게임인 그란투리스모 7이 채택됐다.

그란투리스모 7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현대차는 지난 5월 개최된 현대 N 페스티벌 1라운드에서 진행된 아

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그란투리스모 7 국가대표 선발전’에 공식 심레이싱 장비 지원을 하기도 했다.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예선을 통해 선발된 국내 최상위 선수 24명이 메인 대회에 진출한다. 이 외에도 대학생 대회, 인플루언서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1라운드는 9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되며 2라운드는 10월 30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진행된다.

최종 결승전인 3라운드는 11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게임전시회 G-STAR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대상월라이프 ‘뉴케어 스포츠’ 중 진출

대상월라이프가 스포츠 뉴트리션 브랜드 ‘뉴케어 스포츠’를 앞세워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현지 파트너사와 손잡고 에너지젤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하며 러닝·사이클 등 스포츠 인구를 겨냥한 시장 확대에 나선다. 대상월라이프는 중국 현지 기업 TOP IDEAL과 뉴케어 스포츠 중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월라이프



대우건설, 20번째 ‘꿈나무 초대행사’

대우건설이 여름방학을 맞아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꿈나무 초대행사’를 진행했다. 꿈나무 초대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0번째를 맞았다.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국내외 현장 근무로 가족과 휴가를 보내기 어려운 임직원 자녀를 우선 선발했다. 올해 행사에는 임직원 자녀 80명이 참여했다. /대우건설



IM금융그룹, 청년 음악가 성장 지원

IM금융그룹이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청년 음악가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IM금융그룹은 지난 7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6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 및 클로징 세레모니에 참석해 청년 음악가들을 응원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객석 나눔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IM금융그룹



기보, 부산 청년협력체 ‘스프링보드’ 구축

기술보증기금이 부산광역시, BNK부산은행,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지역 민간 청년협력체(스프링보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청년협력체 ‘스프링보드’를 구성하고 조직문화 개선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기술보증기금



텔스타·여의시스템, 피지컬AI 맞손

이노비즈협화장을 역임한 기술혁신기업의 두 대표가 보유 핵심기술 융합을 통해 사업 사나지 확대와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위해 땀 흘렸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운영 전문기업 텔스타에이펙트로보틱스와 여의시스템은 피지컬AI가 주도하는 다크팩토리,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의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텔스타·여의시스템

파리바게뜨, 동남아 7개국 영토 확장

라오스 비엔티안에 1호점 문 열어
국내 베이커리 최초 라오스 진출
현지 파트너 손잡고 시장 공략 확대

파리바게뜨가 라오스에 첫 매장을 열며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낸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라오스를 새로운 거점으로 추가하며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파리바게뜨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핵심 상권인 뻬뚜사이에 위치한 ‘목목 메기물 뻬뚜사이’ 1층에 1호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의 라오스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장은 약 360㎡ 규모로 72석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

파리바게뜨는 2024년 라오스 현지 기업 코라오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현지 사업을 준비해왔다. 1호점에서는 ‘프레시 요거트 크림 케이크’, ‘베스트 에버 갈릭 브레드’, ‘크런치 초코 번’ 등 글로벌 인기 제품과 함께 식사 및 디저트 메뉴를 선보인다. 현지 소비자 입맛을 고려한 ‘무상킹 두리안 롤케이크’도 판매한다.



파리바게뜨 라오스 1호점. /S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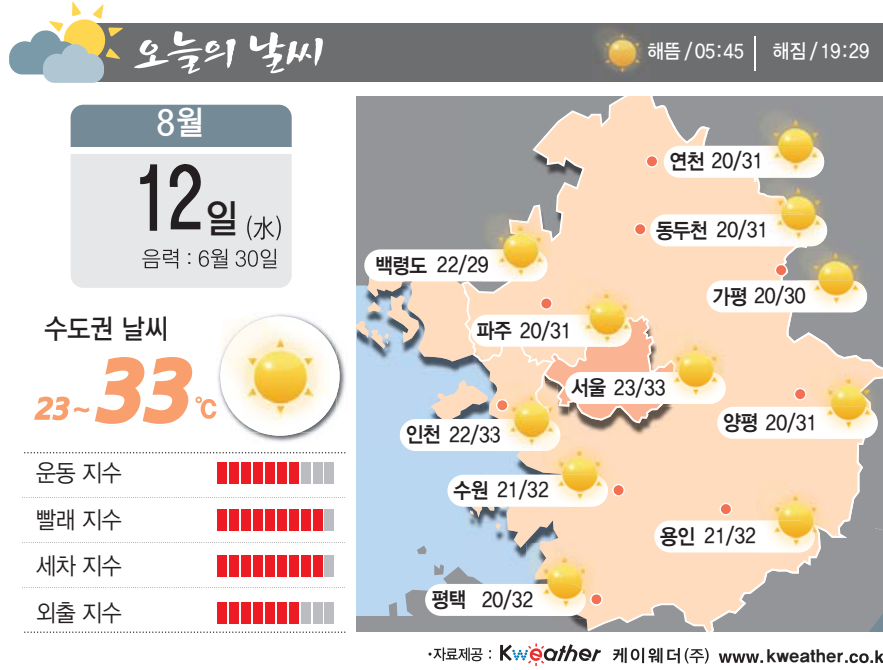
라오스는 도시화와 중산층 확대에 따라 외식·카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지 파트너의 유통 및 사업 역량을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동남아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조호르에 할랄 인증 생산센터를 준공했으며, 올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전 매장에 대한 할랄 인증을 각각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과 사업 모델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유제환 ◇과장급△기업금융과장 장세훈△벤처투자과장 조성우△재정운용담당관 이준희△창업정책과장 강신천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지식재산거래과장 강윤석△특허분쟁대응과장 최진호

부음 ▲최정석씨 별세, 권대수·권남연(김앤장법률사무소)·권기덕씨 모친상, 정병두(김앤장법률사무소)·김우경(가천대 길병원) 원장 및 가천대 의무부총장)씨 장모상, 김경아씨 시모상=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13일 오전 5시. 02-2258-5979



부산항만공사, 진로체험기관 재인증

2029년까지 인증기관 지위 유지
지역 아동·청소년 체험교육 지속

부산항만공사가 교육부 주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 2023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기부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인재 양성 및 지자체·공공기관 협력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올해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부산항만공사의 보유자원과 업(業)특성을 살린 ‘방과 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내 초등 방과 후 돌봄학교 아동이 대상이다. 임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항만산업을 소개하고,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승선 체험도 제공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이 지역 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김연제 기자 kys@

한국토요타, GR86 전시·레이싱 체험행사

슈퍼레이스 관람권·생중계도 마련

한국토요타자동차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잠실 소재 복합문화공간 ‘커넥트투(CONNECTO)’에서 고객 참여형 행사 ‘토요타 가주 레이싱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은 ‘도로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차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과 고성능 차량을 개발한다. 행사 기간 스포츠카 ‘G

R86’을 특별 전시하고 TGR의 역사와 철학, 차량의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 레이싱 시뮬레이터 상위 랭타임 참가자에게는 22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2026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관람권도 증정한다.

15~16일과 22~23일에는 직접 조립한 미니카로 경주하는 ‘TGR 미니카 조립 클러스팅 레이싱’을 진행한다. 22일에는 커넥트투에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 경기를 생중계한다.

/양성운 기자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신용평가 지원 확대

연말까지 경영진단보고서 무료 제공

메인비즈협회가 회원사 신용평가 지원에 나선다. 메인비즈협회는 테크핀레이팅스와 회원사의 기업신용평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회원사 전용 랜딩페이지 및 전담창구 운영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수수료 우대 ▲공동사업 발굴 및 서비스 홍보 ▲기타 상호 협력사항 이행 등을 추진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테크핀레이팅스는 메인비즈협회

회원사에게 연말까지 기업경영진단보고서 무상 제공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회원사 할인 혜택을 적용해 경영 및 행정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메인비즈협회 권영학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협회 회원사의 기업신용평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평가와 경영진단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사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그 여름, 바닷가의 추억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것 같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것 같다. 이럴 때 이더위를 피해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생기고 행복해진다.

일본에서 생활하던 그날도 무더운 어느 여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아보았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해안선이 길어 전국에 수백 곳의 해수욕장이 있다. 그런데 도쿄 도심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수욕장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다. 도쿄만(東京灣)을 끼고 있고 오다이바(お台場)에는 산책이 가능한 모래사장도 있지만 평범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과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즐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한두 시간 이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찾아본 결과, 도쿄 도심 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치바현의 구주쿠리하마(九十九里浜)에 있는 가타카이 해수욕장(片貝海水浴場), 서쪽으로는 가나가와현의

가타세니시하마·구게누마 해수욕장(片瀬西浜・鵜沼海水浴場)이 도쿄 주민들이 즐겨 찾는 해수욕장이었다.

구주쿠리하마는 66Km에 걸쳐 이어진 긴 모래사장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으나, 결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철을 세 번 환승하고 나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 했으며, 버스 정거장에서 바닷가까지 도보로 15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구게누마 해수욕장은 전철을 한 번만 환승하면 되고, 역에서도 걸어서 5분 이내에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말 아침 일찍 옷차리와 갈아입을 옷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전철에 몸을 실었다. 점차 바다가 가까워지면서 열차 속 승객들이 대부분 우리와 같은 목 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쿄 도심을 벗어난 지 한 시간 만에 가타세에노시마(片瀬江ノ島)역에 도착했다. 역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겨왔고 조금 걷다 보니 바로 드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해수욕장은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우선 모래사장의

모래 색이 내가 아는 그 색깔이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백사장이 아니라 검은빛이 감도는 짙은 회색의 모래사장이었다. 분명 오다이바에서는 밝은색의 모래사장을 보았는데, 이곳의 모래는 전혀 다른 색이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일본의 해수욕장 중에는 오래전 화산 활동 영향 등으로 짙은 색깔의 모래사장이 드물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비슷한 모양의 가건물(海の家; 우미노이에(바다의 집))들이 바닷가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 여기에서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일본의 동네 축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메뉴들을 팔고 있었다.

여름철 바닷가는 또 다른 축제장과 같았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가게에서는 무겁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썬베드를 판매하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직접 챙겨온 돗자리를 펼쳐거나 구입한 썬베드를 원하는 곳에 놓고 바다를 즐기고 있었다. 익숙한 한국의 바닷가와는 여러 가지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뛰어들며 웃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낮설었던 에노시마의 짙은 모래사장은 우리 가족의 이름다운 여름의 한 장면으로 남았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마트 장보기 캠페인이 남긴 숙제



김 지 수 접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고물가와 이커머스의 거센 공세 속에서 대형마트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사비(조합비)를 털어 카트를 끌고 매장으로 나섰다. 한국 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최근 단행한 '이마트 장보기 캠페인'이다. 겉보기엔 조합원 복지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면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이 행사의 기저에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이미 온라인으로 향했는데, 왜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만 묶어두느냐”는 뼈아픈 항의가 깊게 배어 있다.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매장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사비까지 털어 노력

하고 있으니, 이제는 정부가 낡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현장의 절박한 속내가 담겨 있다.

실제로 노조는 장보기 캠페인과 함께 대형마트를 둘러싼 기존 유통 규제의 재검토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장보기 캠페인과 유통 규제 비판은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규제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가 묶여 있는 사이,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온라인 플랫폼만 반사이익을 누리며 몸집을 불렀다. 그 결과가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 8.5% 추락과 잇따르는 점포 폐점, 그리고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오는 고용 불안이다. 노조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써서 매출을 올려도,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히면 결국 일자리는 사라진다”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들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부터 카트를 끌어야 한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솔선수범은 그래서 무겁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장보기에 나서 캠페인 당일 이마트 전체 매출을 26%나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스스로 생존 능력을 증명해 보인 셈이다.

노동자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방식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이토록 치열하게 지키려 애쓰는 오프라인 점포가, 변화한 유통 생태계 속에서 다른 채널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카트를 끈 마트 노조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진짜 숙제다.

/tree6834@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2일 (음 6월 3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큰 업체와 계약이 성사됩니다. **60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72년생** 사랑과 우정,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84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49년생 여행은 좋으나 북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61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 보입니다. **73년생**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보여주세요. **85년생**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세요.



50년생 어렵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62년생** 뜻밖의 인연이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합니다. **86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51년생 공익을 앞세워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63년생** 현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세요. **75년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립됩니다. **87년생**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52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마세요. **64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76년생**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8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일 뿐입니다.



53년생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65년생** 종도독을 조심하세요. **77년생** 고비를 잘 넘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4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66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합니다. **78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90년생**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55년생 체념하지 말고 견디며 나아갈 때입니다. **67년생** 다툼을 주의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79년생** 어렵겠지만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91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56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환받길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57년생 서두르지 마세요. **69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81년생** 친구와 동료간에 모임이나 회식을 가지게 됩니다. **93년생**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58년생 큰 성공에 욕심을 부리면 크게 전략할 위험이 있습니다. **70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2년생** 불운을 잘 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59년생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71년생** 마음의 걱정을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83년생** 소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95년생**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대웅

대웅은 큰 영웅, 즉 진정한 영웅을 뜻한다. 세속적 의미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나라를 구한 호걸들을 영웅이라 칭하며 그 공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경우 대웅이라 말하지만, 불가에서는 자신의 욕망이나 탐진치 등 마음의 부정적 번뇌를 이겨낸 사람들을 영웅이라 칭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얻은 자, 그를 일러 대웅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노자(老子)도 했다. “승인자유력(勝人者有力) 자승자강(自勝者強)”, 즉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라고 한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석가모니부처님의 대웅 지론과도 통하는 말씀 아닌가?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다.

즉 욕망과 번뇌를 이겨낸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한다. 사찰에 따라 대웅전을 대웅보전(大雄寶殿)으로 더욱 큰 존경의 의미를 담으려는 뜻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고대 한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절의 중심건물을 ‘금당(金堂)’이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고귀한 분을 모신 금당이 귀한 자리라는 뜻이다. 석가모니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경우에는 대웅전 대신 적멸보궁이라 칭한다. 적멸보궁은 부처의 진짜 몸을 모신 곳이므로 불상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불상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5대 적멸보궁이 있다.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사리를 양산 통도사,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설악산 봉정암, 영월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다섯 곳 적멸보궁에 모셨다. 자장율사는 신라의 국사였으므로 당시 신라의 영토였던 곳의 사찰에 불상 대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함으로써 직접 부처님이 계신 것으로 본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박한 놀이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5		1	9			
	1		2					
						3	8	
		1	4				2	
		9		2		1		
	4				1	8		
	6	8						
				8		6		
			9	7		4	3	8

결합형 스도쿠
153문제
스도쿠 3650

결합형 스도쿠
153문제
스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8	7	9	2	6	2	9	1
9	9	2	8	7	1	2	6	8
6	1	2	9	8	8	9	7	
9	9	8	1	6	2	8	7	2
7	2	1	8	2	9	6	8	9
8	2	6	9	8	7	1	2	9
1	8	6	2	9	7	7	2	6
2	6	9	7	8	2	9	1	8
2	7	9	6	1	8	9	8	2

2	2	6	8	7	8	1	9	9
7	8	9	1	2	9	2	8	6
9	8	1	6	2	9	2	8	7
1	9	2	2	9	8	6	7	8
6	9	8	7	1	2	9	2	8
2	7	8	9	6	8	9	1	2
8	6	7	9	9	2	8	2	1
8	1	2	2	6	7	8	9	9
9	2	9	8	1	7	6	2	2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국가 상한선 도입
L1



Life

등록금 동결
예산은 국립대로
사립대 '비상'
L2



저가공세 접고, 개인·기업 지갑 연다... 중국 AI 수익화 총력

중국 첨단산업지도

AI 플랫폼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의 경쟁이 이용자 and 기술력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실제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중국 최대 AI 원생 앱인 '두바오'의 유료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기업용 AI 클라우드와 광고, 전자상거래, 응용 서비스 등이 주요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6월 24일 '두바오 전문판'을 정식 출시했다. 자동 갱신 기준 월 구독료는 표준형 68위안(약 1만4000원), 강화형 200위안(약 4만2000원), 고급형 500위안(약 10만5000원)이다. 연간 구독료는 각각 688위안(약 14만4000원), 2048위안(약 43만원), 5088위안(약 107만원)이며 재학생은 인증을 거치면 6개월 동안 표준형을 월 38위안(약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문판은 기존 무료 서비스와 별도로 운영된다. 무료 이용자도 신규 모델과 기존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이용자는 더 많은 사용량과 컴퓨터·브라우저 조작, 문서·표 작성, 반복 작업 자동화 등의 업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 AI 서비스의 유료화가 처음은 아니다. '킴이'를 비롯한 일부 AI 전문기업은 이미 개인용 유료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킴이의 최저 월 구독료는 49위안(약 1만원)이다. 두바오까지 유료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중국 AI 시장의 경쟁 기준도 성과와 이용자 수에서 매출 창출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막대한 투자비에 수익화 필요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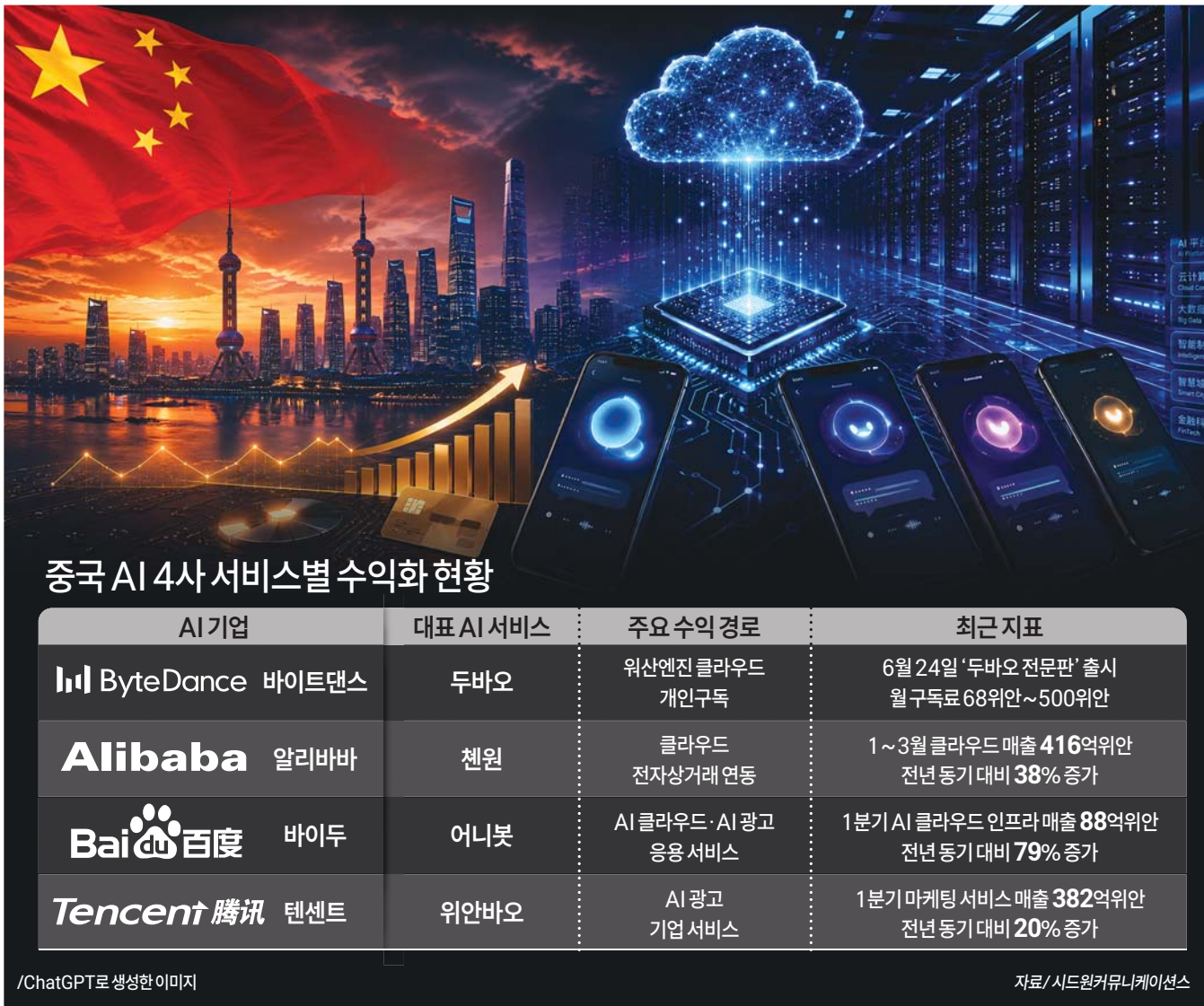
AI 기업들이 유료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모델 개발비와 데이터센터 투자비가 있다.

탄다이 휘산엔진 총재는 지난 6월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에서 두바오 대모델 계열의 하루 평균 토큰 호출량이 180조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0배, 2년 전보다 150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해당 수치에는 바이트댄스 내부 서비스와 외부 기업 고객의 호출량이 모두 포함돼 있다. 양측의 비중이 공개되지 않아 매출이나 고객 청구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사용량 급증에 따라 서버 연산과 전력 사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요 기업의 AI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알리바바는 3년간 최소 3800억위안(약 80조원)을 AI와 클라우드 기반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용밍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는 실제 투자액이 당초 계획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텐센트의 지난해 자본지출은 역대 최대



중국 AI 4사 서비스별 수익화 현황

인 792억위안(약 16조6098억원)을 기록했다. 전액이 AI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 바이두는 2023년 3월 어니봇 출시 이후 AI 분야에 누적 1000억위안(약 2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투자 기간과 회계 항목은 다르지만 AI 관련 투자와 매출이 동시에 늘면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공통 과제로 떠올랐다.

◆개인 구독보다 앞선 기업용 AI 클라우드

개인용 구독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실적을 통해 성장세가 확인되는 분야는 기업용 AI 클라우드다.

바이두의 올해 1분기 AI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88억위안(약 1조84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했다. 그 래픽처리장치(GPU)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은 184% 늘었고 AI 기반 핵심사업 매출은 136억위안(약 2조8536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알리바바의 올 1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416억2600만위안(약 8조73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 늘었다. 우용밍 CEO는 AI 모델과 응용 서비스의 연환산 반복매출이 올해 말 300억위안(약 6조29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텐센트의 올 1분기 마케팅서비스 매출은 381억7100만위안(약 8

중국 AI 기업, 수익화 단계로 이동 두바오 전문판 출시...구독시장 커져

개발비·데이터센터 투자비 늘고 사용량 급증에 서버·전력 부담 커져 막대한 투자금 회수 '공통 과제'로

개인보다 기업용 AI 클라우드 선전 바이두·알리바바 B2B 매출 성장 광고·이커머스 결합해 수익 확장

AI 기업 특성별로 수익구조 달라 대형 플랫폼, 검색 연계 매출 확보 AI 전문기업, 기업·해외 사업 집중 딥시크 저가공략 속 유료전환 관건



중국의 인공지능(AI) 앱 '딥시크(Deep Seek)'

조원)으로 20% 증가했다. AI 광고 추천 모델과 웨이신 생태계의 폐쇄형 마케팅 기능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서비스 매출도 AI 클라우드 수요에 힘입어 20% 늘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상장사인 바이트댄스는 관련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다. 일부 중국 매체는 휘산엔진의 2025년 전체 매출을 240억(약 5조345억원)~250억위안(약 5조2450억원)으로 추산했다.

IDC에 따르면 휘산엔진은 2025년 외부 기업 고객 대상 중국 공공 클라우드 대모델 서비스의 토큰 호출량 가운데 49.5%를 차지했다. 이는 매출이 아닌 호출량 기준 점유율이다. 같은 기간 해당 시장의 전체 매출은 30억7000만위안(약 644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휘산엔진의 대모델 서비스 매출이 약 15억위안(약 3148억원)이었다는 중국 매체 보도도 나왔다. 업체들이 토큰 가격을 낮추면서 호출량 증가가 같은 폭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AI 플랫폼 경쟁은 검색과 상품 비교, 주문, 결제 등을 하나의 앱에서 처리하도록 기존 서비스와 AI를 결합하는 방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알리바바는 올해 1월 첸원 앱에 타오바오·티몰·알리페이·가오더 지도 등을 연결했다. 지난 5월에는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판매되는 40억개 이상의 상품을 연동해 대화를 통한 상품 검색과 비교, 주문, 배송 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텐센트는 웨이신과 위챗의 합산 월간 활성 계정 14억3200만개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바이두도 검색 서비스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신규 이용자를 별도로 확보하기보다 전자상거래와 메신저, 검색 등 기존 서비스 이용자를 자사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딥시크 저가공세 속 개인 구독 시험대

바이트댄스·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가 기존 이용자와 서비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수익원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딥시크는 낮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딥시크는 지난 4월 24일 새 모델 'V4 프리뷰'를 공개하면서 모델 기중치를 공개하고 상업적 이용을 허용했다. 상위 모델에 적용했던 한시적 75% 할인가를 상시 가격으로 전환하고 반복 사용 구간의 입력 가격도 인하했다. 개인용 챗봇은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과 개발자에게 API 사용료를 받는 구조다.

로이터는 지난 6일 블룸버그를 인용해 딥시크가 한때 중단했던 2차 투자 유치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목표 조달액은 약 80억달러(약 11조원), 목표 기업가치는 약 5000억위안(약 105조원)으로 알려졌다. 투자 유치와 상장은 저가 API 경쟁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컴퓨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중국 AI 기업의 수익 구조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AI 전문기업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바이트댄스·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는 기존 동영상과 전자상거래, 메신저, 검색 서비스에 AI를 연결해 클라우드 사용료와 광고, 전자상거래 수수료, 개인 구독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딥시크·문샷AI·즈푸AI·미니맥스 등 AI 전문기업은 모델 API와 개인 구독, 기업용 서비스, 해외 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미니맥스는 2025년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올렸다. 딥시크는 무료 챗봇과 저가 API를 앞세워 다른 AI 기업의 가격 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생성형 AI의 개인 구독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주요 서비스가 기본 기능을 무료로 유지하고 있어 개인 이용자의 결제 전환율도 공개되지 않았다. 두바오 전문판 출시를 지난 6월 기준 월간 이용자 3억8200만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유료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재활시즌에도 에이스는 에이스...키움 안우진, 승수보다 빛나는 투구
▲이정후, MLB 한 시즌 개인 최다 9호포 작렬... 팀은 연장 10회 역전패 /사진 뉴스스

▲'1위 경쟁' KT-삼성, 60승 선착 도전...77.8% KS 직행 확률 잡아라
▲K리그2 성남, 신임 사령탑에 '원클럽맨' 김해운 단장 선임

▲KBL, 내일 재정위 열어 '세금 이슈' 가스공사 라건아 등록 심의
▲'KLPGA 데뷔 10년만 첫 승' 장은수, 세계랭킹 76계단 오른 96위